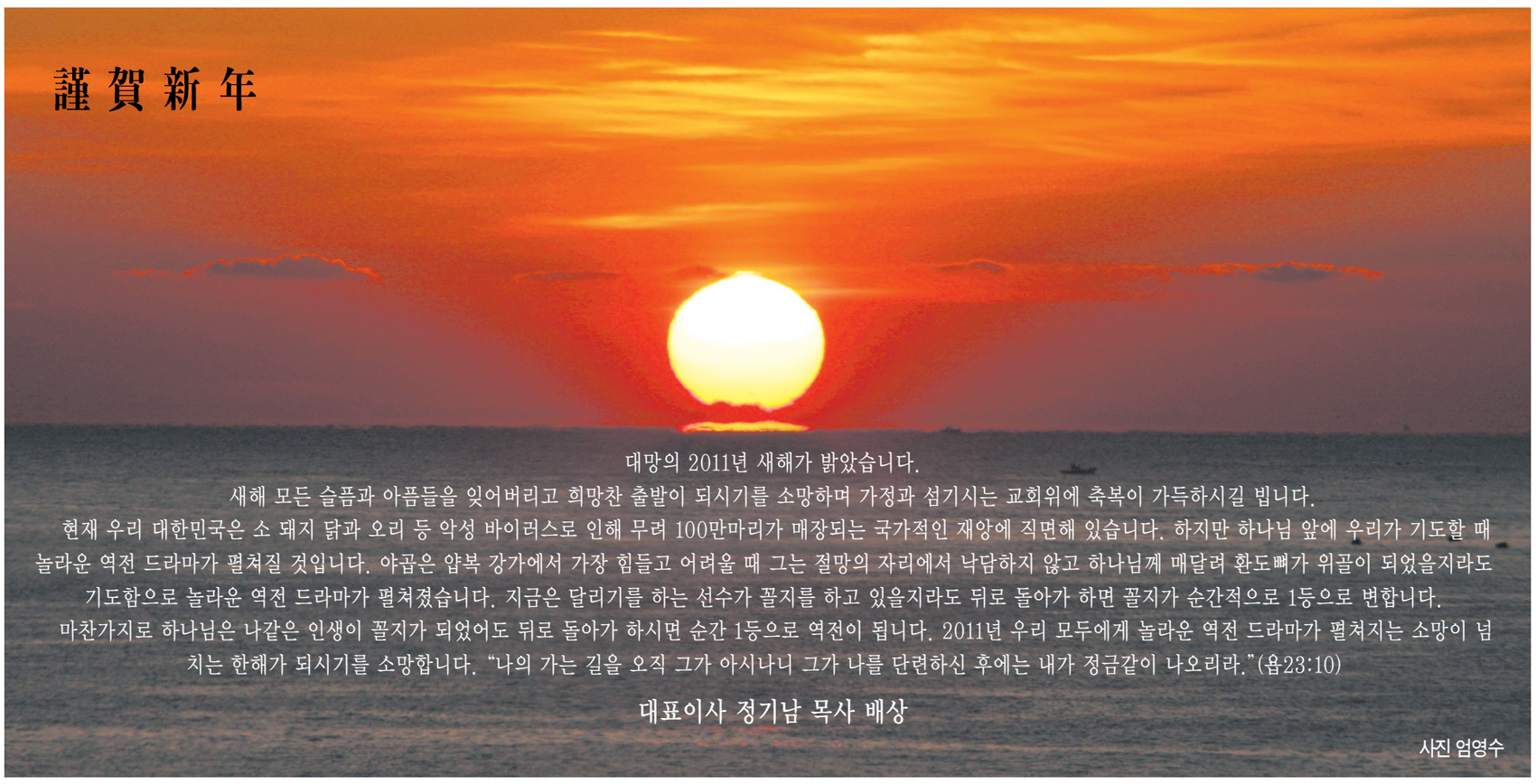
아토피 · 건선 · 난치성피부질환전문
조원한의원
진료시간 오전 9:00~1:00 (점심시간 1:00~2:00) 오후 2:00~7:00 (토·공휴일 5시까지, 주일 휴진)
원장 송 창 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가 231-2
Tel : 02)2264-8822 · 8833
Fax : 02)2264-8833

JTNTV.KR 지저스타임즈 신문

지저스타임즈

The Jesus Times ▮사장 : 소진우 ▮발행 · 편집인 : 정기남 ▮대표전화 : 02-741-0031 www.JTNTV.kr 인터넷 방송 2011년 1월 19일 수요일 [37호]

한국기독교스포츠총연합회
The Christion Council Sports of Korea
"한국기독교스포츠총연합회가 기독스포츠인을 응원합니다"
대표회장 정삼지 목사 사무총장 이주태 장로
www.ccsk.or.kr TEL:02)2213-4258 FAX:02)2213-4259



대망의 201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모든 슬픔과 아픔들을 잊어버리고 희망찬 출발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가정과 섬기시는 교회위에 축복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소 돼지 닭과 오리 등 악성 바이러스로 인해 무려 100만마리가 매장되는 국가적인 재앙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놀라운 역전 드라마가 펼쳐질 것입니다. 야곱은 얍복 강가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는 절망의 자리에서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려 환도뼈가 위골이 되었을지라도 기도함으로 놀라운 역전 드라마가 펼쳐졌습니다. 지금은 달리기를 하는 선수가 꼴지를 하고 있을지라도 뒤로 돌아가 하면 꼴지가 순간적으로 1등으로 변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나같은 인생이 꼴지가 되었어도 뒤로 돌아가 하시면 순간 1등으로 역전이 됩니다. 2011년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역전 드라마가 펼쳐지는 소망이 넘치는 한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욥23:10)

대표이사 정기남 목사 배상

사진 엄영수

웨신총회 희망 2011 새 출발 '화합과 단결'을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총회는 희망2011년 새해를 맞아 신년감사예배가 드려진 후 각 노회에서 추천한 어려운 목회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총회 원로와 증경총회장, 임원 등 20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여 부총회장 이홍규 목사 인도로 예배가 진행되어 총회장 성흥경 목사가 "새로운 해의 다짐"이란 제하의 말씀을 선포하고 희망찬 2011년 새해를 맞아 새롭게 한해를 출발하는 웨신총회가 화합과 단결로 교단발전에 힘써 나가자고 다짐했다.

3면에서 계속

한기총, '구제역을 거둬주옵소서' 금식기도 선포

"1월 16일 금식하고 헌금 모아 축산농민 위로" 요청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구제역이 전국으로 퍼지면서 피해규모가 날로 커짐에 따라 1월 16일을 '금식주일'로 선포, 하나님께 구제역을 거둬주실 것을 기도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이광선 목사는 "1월 16일을 '금식주일'로 선포했다며 온 교회가 금식하며 우리 죄를 회개하고 금식헌금을 모아 이웃의 축산농민과 방역종사자를 위문할 것을 한국교회에 요청"했다.

이 대표회장은 "지난해 말에 발생한 구제역이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전국으로 번져 매몰한 가축이 이미 100만 마리를 넘어섰고, 벌써 보상과 방역에 1조원을 넘게 투여하고도 축산업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며, "가히 국가적 재앙의 상황에 조류인플루엔자(AI)와 신종플루(인플루엔자A/H1N1)까지 가세하여 바이러스 피해가 날로 창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회장은 구제역 창궐에 대해 "인류의 무절제한 물질적 탐욕과 무자비한 환경의 파괴와 하나님 창조질서에 역행하는 유해식품과 동물사료의 생산 등 인간의 총체적인 죄악상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이자 진노라고 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한국교회는 "구제역을 거두시라고 기도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정부와 방역당국에 "구제역과 AI 등의 확산 저지와 소멸에 더욱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한 이 대표회장은 "축산업이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 피해 축산농가의 보상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도 주문했다.

이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고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는 말라기 3:11-12을 소개한 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이 땅을 고치시고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시설

늙은이가 꿈꾸고 젊은이가 이상vision을 보는 한해 되기를

기억하고 싶지 않은 다사다난했던 2010년 한해가 지나고, 소망의 새해가 밝아왔다. 사면초가의 강대국 틈에 끼어, 역사적으로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시대에,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다가올 새 시대, 새로운 꿈과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 본다. '그 후에 내가 내신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욜 2:28)

원래 늙은이는 꿈은 사라지고, 지나간 추억을 먹고사는 존재이다. 꿈의 개념은 원래, 과거지향이 아닌, 미래지향의 의미를 담고 있다. 죽음을 앞에 놓고, 온 몸에 병만 남아, 영육 간에 지치고 지친 늙은이가 무슨 꿈이 있겠는가? 그러나 주의 영이 임하시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해골도 살아 일어나, 여호와의 군대가 되듯 늙은이가 꿈을 꾸는 기적이 일어난다. 성서에서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다.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강 하구, 우르에 살던 농경민의 후손인, 나이 75세 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조국과 민족, 고향땅을 버리고 하나님이 가라하는 곳, 멀리 이국땅을 향해 떠나간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꿈을 꾸게 한 것이었다. '네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창 12:1-2) 그리고 10여년이 지나, 가나안으로 떠나갔던 아브라함에게 다시, 80이 넘은 그를 하나님은 꿈을 꾸게 만드신다. '여호와의 말씀이 비전이 되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두려워 말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내게 씨를 안 주셨으니, 나는 상속자도 없는 무자식신세입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밤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네 자손의 수가 이와 같으리라. (창 15:1-5)

시 57:7절에서 다윗은, '내 마음이 확정my heart is steadfast' 되었사오니,,,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지금, 여기 Here, and now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은, 시간적으로 10여년을 사울 왕에게 쫓기어 다니며, 공간적으로 사자굴, 풀무불속 같은, 사막 동굴 속에 죽은 듯이 숨어 지낸다. 상황적으로 그물에 걸린 짐승처럼, 함정에 빠져 울부짖는 짐승처럼,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신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기에, my heart is steadfast. 나는 노래하고, 찬송하며,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는 것이다. '출구出口'없는 '궁지窮地'에 있으면서도, 동터오는 새아침, 신 새벽의 소망과 새 역사를 바라보는 비전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한다. 믿음은 눈으로 '보아서 믿는 게' 아니라, '믿어서 보이는 것'이다. 우리 민족이 2011년 한해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으로, 꿈꾸고 비전을 보는 한해가 되길 비는 바이다.

謹賀新年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총회
희망2011, 새 출발 "화합과 단결"



총회장 성 흥 경 목사 (송석교회)
부총회장 이 홍 규 목사 (지구촌교회)
부총회장 이 재 갑 목사 (빛과소금교회)
서 기 김 춘 택 목사 (은천교회)
부서기 장 창 윤 목사 (열린찬양교회)
회의록/서기 이 기 식 목사 (한샘교회)
부회의록/서기 고 영 전 목사 (대망교회)
회 계 허 성 인 목사 (신성교회)
부회계 정 일 량 목사 (향기로운교회)
감사 이 일 영 목사 (성문교회)
감사 전 현 구 목사 (온누리교회)
감사 지 영 철 목사 (동서울교회)
총무 신 언 창 목사 (성암교회)

2011년 대망의 새해를 맞아
총회장 성흥경 목사외 임원 일동

웨신총회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5동 442-105(201호)
전화 : 02)835-2606-7, 팩스 02)835-2608
연락처 : 총무 010-8602-3009 서기 010-4166-2307
홈페이지 http://ws21.onmam.com

예장합신 2011년 새해감사예배 및 하례회 가져

합심단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의 길을 갈 때 축복의 대로 열려

예장합신 총회(총회장 장상래)는 1월 4일(월)오전 11시 한국기독교연합회관 17층에서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식을 열고, 2011년 새해를 감사함으로 출발했다.

부총회장 권태진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신년감사예배에, 증경총회장 임석영 목사의 기도와 총회 서기 전 현 목사가 성경을 봉독, 총회장 장상래 목사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장 총회장은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보면 형식, 외식, 습관에 젖어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 없는 탈선의 길로 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하지만 사람의 원래 지음 받은 목적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합심 단결하여 나아가자"면서 "우리 총회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의 길을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의 대로를 열어 주실 것"이라고 전했다.



신년하례예배

이어 총회와 전국 지교회를 위하여 증경총회장 김기영 목사, 대한민국과 민족복음화를 위해 증경총회장 안만수 목사,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를 위해, 증경총회장 김정식 목사, 세계선교와 선교사를 위해 특별기도를 부총회장 정문영 장로 등이 기도하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회개기도를 했다. 이어 증경총회장 엄원규 목사 축도로 마쳤다.

2부 하례회는 총무 박종언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역대 증경총회장들에게 총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증정하고, 참석자들로 서로 새해 인사를 가졌으며, 이어 증경 총회장의 새해 메시지를 함께 듣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예장합신 총회는 2011년은 30주년이 되는데 이 기념대회는 오는 5월2일부터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저스타임즈 jtpress@hanmail.net

"영혼구원을 위해 힘쓰는 한국교회가 되자"

한기총, '2011 신년하례예배' 참석한 교계 지도자들 다짐



한기총 신년하례 설교 림인식 목사

한국 기독교계를 대표하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의 신년하례예배에 참석한 한국교회 지도자 250여명이 지극히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쓸 것을 다짐했다.

한기총이 2011년 1월 3일(월) 오전 11시에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중강당에서 드린 '2011 신년하례예배'의 시작에 앞서 대표회장 이광선 목사는 '새해인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으로 도약과 사랑을 실천하는 신묘년 한 해가 되자"며 참석자들을 환영했다.

예배는 공동회장 윤석희 목사의 사회로 기도에 나선 부회장 김윤기 목사는 "2010년 교회적 사회적 국가적으로 어려운 일이 많았던 한해였다"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한 해를 무사히 이겨내고 2011년 새해를 맞게 하심에 감사"하면서 또 한기총을 위해서는 "한국교회의 변화를 주도하고 일치를 주도하며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의 중심이 되고 한국 교회의 제 모습 찾기에 주력하는 등의 한기총이 되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이어 전성원 장로(공동회장)의 성경봉독했다.

이날 림인식 목사(명예회장)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란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림 목사는 "오늘 날 한국 기독교가 겪는 어려움은 목회자들이 하나님과 민족 앞에서 올바른 지도를 하지 못했다"것을 지적하고 "하나님께서는 수고 없이 복을 주시지 않는다"며 "지극히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신학과 교회를 만들어가며 영혼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힘쓰는 한국교회가 되자"고 강조했다.

이어 공동회장 이용호 목사가 '국가안보와 평화통일을 위하여', 환경보전위원장 이영주 목사가 '한국교회 부흥과 세계선교를 위하여', 공동회장 하태초 장로가 '한기총과 교회 지도자를 위하여' 각각 기도했다. 서기 문원순 목사가 신년메시지를 낭독했으며 총무 김윤태 목사의 광고 후에 명예회장 최성규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으며 공동회장 윤종관 목사가 오찬기도를 했다.

아가페 기독여성 협의회 제11회 구국기도회 열어

한국아가페 기독여성 협의회는 제1회 구국기도회 및 제4회 정기총회 가져

민족의 파수꾼이 되자(겔 3:17)라는 주제로 1월10일(월요일)오후 1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구국기도회 및 정기총회를 열렸다.

황송자 대표회장은 인사말씀에서 2011년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먼저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했으며, 지난해 끔직한 북한의 천안함 격침사건과 연평도 도발 등 민족의 피눈물이 멈추지 않고 흐르는 슬픈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임을 깨달았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신 예레미아 선지자의 경고를 기억하며 이 땅에 우리주님이 주시는 참 평화가 임하는 그날까지 깨어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는 2011년 대망의 한해가 되고 가정에도 축복이 넘치기를 기원했다.

이날 황 대표회장 사회와 직전대표회장 장은화 장로의 기도, 김계식 부서기가 눅 11:13절을 봉독하고 사라코러스의 찬양에 이어 포도원 교회 김문훈 목사는 "좋은 것"이란 제하의 말씀을 선포하고 (첼리스트)유 하나루 (피아니스트)강소연 부부의 연주에 이어 특별기도, 축사, 격려사, 애국가 제창 등 내빈소개 및 광고가 있었으며, 이날 강사로 나선 김문훈 목사 축도로 마쳤다.

한국 아가페 기독여성 협의회는 2007년 11월에 창립하여 현재 11개 지부를 두고 있으며 국가 번영과 민족을 위한 기도와 봉사를 하고 있는 기독여성 단체이다.



한국 아가페 기독여성 협의회 제1회 기도회 및 정기총회

2011년 한국보수교단협의회 신년 하례예배 드려

대표회장 지왕철 목사 올 한해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각 교단장들에게 부탁

(사)한국기독교 보수 교단협의회가 지난 1월11일(화)오전11시 용산구 용산동 3가 소망교회에서 신년하례예배를 드렸다.

서울지역과 각 지방 교단장들이 참석해 새해 인사를 나누고 덕담을 나누었다.

예배는 협의회 상임회장 이범성 목사의 사회와 예수교사도의 감독 박영근 목사의 기도 협의회 서기 이정구 목사가 행:20-28절 성경봉독을 한국샤론선교찬양단의 특별찬양에 이어 협의회 대표회장 지왕철 목사는 "하나님이 피로 사신교회"라는 신년 메시지를 오순절성회 총회장 정명구 목사는 (1)국가 안정과 통일을 위하여, 예신총회 총무 민정식 목사는 (2)본 협의회 발전을 위하여, 합동근본총회 증경총회장 김주상 목사는 (3)한국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근본총회 총회장 송춘길 목사가 (4)세계 선교를 위하여 특별 기도를, 고수총회 총회장 신한철 목사 헌금기도를, 지왕철 목사는 전임 교단장 공로패, 신임 교단장 축하패를 증정하고, 대표회장 지 목사는 먼저 오늘 추운 날씨에도 오신 총회장님과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지난 한해를 돌이켜 보면 부족한 점이 많아서 송구 하다고 말하고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교단 복음을 위해서 저와 임원들이 매일 같이 오전에 기도를 드리고 있으며 올 한해도 보수원형, 보수근본을 지키며 W.C.C 반대운동을 약속하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면서 한 해 동안 많은 기도와 협조를 요청하고 새해 인사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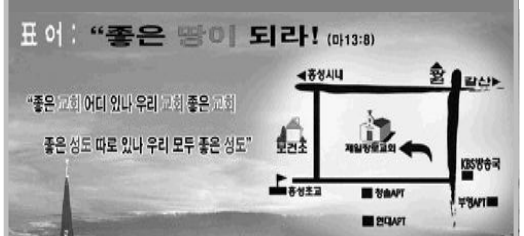

보수교단 신년하례를 마치고 기념촬영

이어 협의회 사무총장 박수용 목사가 광고를,(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개혁 증경총회장 강년섭 목사 축도로 마쳤다. 이어 기독교 한국성결회 감독 윤성열 목사의 식사기도로 모든 행사를 은혜 가운데 마쳤다.

지저스타임즈 | www.JTNTV.kr 기독인터넷방송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다-07837(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대표고문 : 피종진 목사 사장 : 소진우 목사 발행인 : 정기남 목사
전국 16개 지사 / 해외 9개국 지사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마천2동 140-31
▶E-mail : jtpress@hanmail.net
▶전화 : 070)8230-0032, 0034 ▶ 팩스 : 02)741-0031
▶대표 : 011)468-6574, 02)741-0031(팩스겸용)
▶정성을 다한 후원금은 도시 농어촌 미자립교회와 해외지사에 신문을 보내는 선교사가 됩니다. 문서선교에 후원이사가 되어 주십시오.
▶1구좌 후원금 10,000원부터~
▶1년 구독료 : 40,000원
▶후원계좌(예금주 : 정기남)
하나은행 670-110405-00108 / 농협 455030-56-005509

謹賀新年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안교회

담임 장승현 목사
(본지논설위원)
"가족같이 가정같이 평안하고 행복한 교회로....."
충남 당진군 송악면 봉교리 55-6
전화 041)356-0644, 팩스 041)356-0646
E-mail : sunghyun732@hanmail.net
H.P 011)9027-9712

謹賀新年
표어 : "좋은 땅이 되라! (마13:8)
"좋은 교회 어디 있나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좋은 성도 따로 있나 우리 모두 좋은 성도"


한국기독교장로회
홍성제일교회
담임목사 오종설
2010년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구분 시간
장년예배 주일 낮 예배-1부 주일 오전 9:00
주일 낮 예배-2부 주일 오전 11:00
주일 밤 예배 주일 밤 7:30
수요 밤 예배 수요 밤 7:30
금요영성치유집회 금요 밤 9:00
교회학교 유치부 예배 주일 오전 11:00
어린이 교회학교 주일 오전 9:00
중, 고등부 토요 오후 4:00
모임 대학부 토요 오후 6:30
청년회 토요 오후 6:30
문화교실
순번 구분 시간
1 홍남사우이가대미 화요 오전 11:00
2 바둑교실 주일 오전 10:00
3 탁구교실 주중 오전 12:00
4 제자훈련 주중 정한시간
5 숫돌이 축구교실 주일 오후 3:00
6 음악교실 주일 오후 2:00
7 숫돌이 주중 매일
8 체력단련 주중 매일
9 홍성아동방과후교실 주중 매일
10 총서성경대학 오전반 [수, 목] 오후반 [화, 목]
홍성제일장로교회
주소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옥암리 952 번지
전화 : 041- 634-0441(사무실) 041-633-6146(목양실)

謹賀新年
대한예수교장로회
주사랑교회

담임 장한욱 목사
(본지 운영이사)
예/배/시/간/안/내
예배 시간 예배 시간
주일 대 예배 낮 11시 주일학교 오전 9시
주일저녁예배 오후 2시 학생회 토,오후 5시
수 요 예 배 오후 7시30분 청년회 토,오후 8시
새 벽 예 배 새벽 5시 어진도구역예배 금,낮 11시
금요철야예배 밤 9시 남진도구역예배 매월토,저녁 8시
•선교사 : 김경자 •강도사 : 장정훈 이진영,
•전도사 : 장성철, •반주자 : 한진경, 한송이
(우 473-080)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748 대림프라자 7층
전화 : 031)424-7612
H.P : 010-4436-7060

謹賀新年
대한예수교 장로회 광성교회
(부설 : 광성노인대학)

담임 장창수 목사
장 로
이유영 윤호중 조두현
안수집사
김형준 차경식 공종현
윤진명 이찬영
(우)447-140) 경기도 오산시 궐동 661-1
☎031)373-1151, 377-9372 팩스 031)372-2583

웨신교단 신년하례 특집

웨신 희망2011 신년하례식 및 장학금 전달


웨신신년하례를 마치고 기념촬영

지역개발로 길거리로 내 몰리는 12,000여 한국교회를 위하여, 국가와 경제가 위태로운 이때 나라의 안녕과 평화를 위하여,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축바이러스로 가축 100만 마리가 매몰처분 되는 국가적 재앙이라며, 이를 위하여 기도해야 한자며 호소.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총회는 1월6일(목)오전11시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5가 로즈마리 웨딩홀에서 희망 2011년을 맞아 신년 감사예배를 드렸으며, 하례식에서 각 노회에서 추천한 어려운 목회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총회 원로 목사, 증경총회장, 임원 등 200여 명의 총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부총회장 이홍규 목사 인도로 예배가 진행되어 서기 김춘택 목사가 기도를, 회의록서기 이기식 목사는 여호수아 1:6-9절을 봉독하고, 총회장 성흥경 목사가"새로운 해의 다짐"이란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성 총회장은 총회를 사랑하고 아껴주신 모든 총회원들에게 새해 인사와 축복을 기원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인한 국가의 위기, 경제위기로 인한 어려움이 많은 해였으며 그 중에 12,000 우리 한국교회가 문을 닫아야 하는 아픔도 있었다. 지금도 지역개발로 인하여 많은 교회들이 길거리로 내 몰리는 가운데 있어 이를 강력히 저지하기 위하여 뜻있는 목회자들이 동참하여 단식투쟁에 있다면서 성 총회장도 같은 입장이라며 한국교회를 위하여 나라의 안녕과 평화를 위하여,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축바이러스로 가축 100만 마리가 매몰처분 되고 있는 국가적 재앙에 웨신총회가 합심하여 기도하자고 호소했다.


웨신총회장 성흥경 목사(설교 중)

이어 웨신총회가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며 총회에 대한 자부심과 비전을 가지고 자기정체성과 자아상으로 각자가 자기 자리를 잘 지키면서 충실할 것을 주문했다. 성 총회장은 또 웨신총회가 이제 10년을 맞았다면서 확실한 목표를 설정하고 더욱 굳게 힘을 모아 성장하는 총회로 일어나자며 돌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소망했다.

이어 부총회장 이재갑 목사(빛과소금교회 담임)가 총회장 성흥경 목사에게 장학금을 기탁하고, 성 총회장은 각 노회에서 추천한 어려운 목회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장학금은 강동노회 허 진 목사 강원노회 변성일 목사 경천노회 강형식 목사 경향노회 이승형 목사 남부노회 공규봉 목사 대한노회 윤장석 목사 동서노회 김정일 목사 서울노회 신동근 목사 수도노회 김성칠 목사 중부노회 원명섭 목사 중앙노회 정기범 목사 한서노회 유승태 목사 한성노회 김선동 목사 자녀 등이다.

이어 총무 신언창 목사의 광고가 있은 후 총회장 성흥경 목사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하례식에서 증경총회장 장창수 목사의 덕담과 총회 원로와 총회장, 임원 일동이 케익 커팅을 가진 뒤 다함께 새해 인사와 덕담을 나누며, 경향노회 장광수 목사의 오찬기도로 화기애애한 가운데 오찬을 가졌다.


신년하례 이모 저모


웨신총회 원로와 참석한 총회원, 예배드리는 모습


장학금 전달식


신년하례를 마치면서 교단발전을 위하여 축배를 들었다.

2011 이경은 목사 한국과 세계교회에 아바드 횃불 밝혀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 현장 재현 꿈꾸는 '아바드리더컨퍼런스 5기 2차 세미나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 현장 재현을 꿈꾸는 '아바드리더컨퍼런스 5기 1차 세미나' 가"이만한 장수가 없었더라"는 주제로 지난해 중순 청원진주초대교회에서 열려 많은 역사가 일어났다. 이경은 목사는 아바드리더시스템은 '섬기다' 라는 뜻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는 히브리어 '아바드' 를 바탕으로 하여 만들어졌다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함으로써 성도를 용사로 세우는 것에 목적을 둔 시스템이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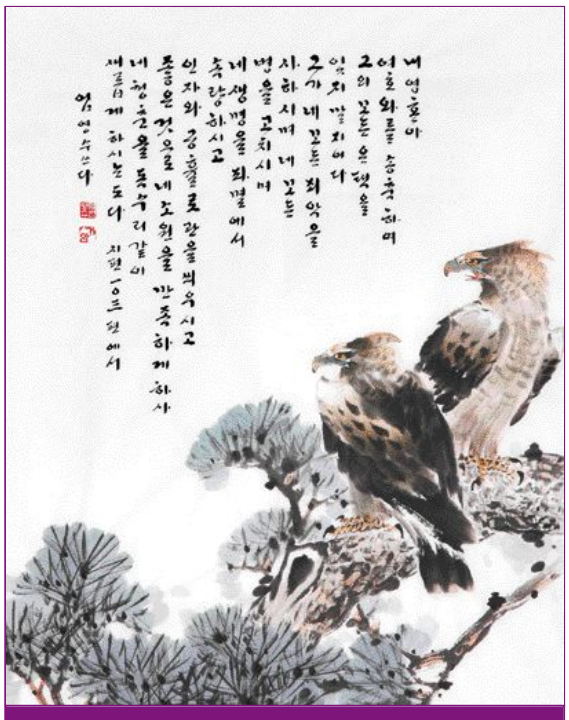
이 시스템은 전도, 아바드 새가족반, 아바드 성장반, 아바드 핵심반, 아바드 청지기반, 아바드 비전반, 아바드 용사반, 아바드 사역반으로 구성돼 있으며, 특별히 각 과정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들어가기까지의 과정 속에서 신앙의 단계적 성장을 발견, 그 단계들을 반영하고 있다. 이 세미나를 통해 이 목사(아바드리더시스템 교육원장)는 강사로 나서 참석한 1천여 목회자, 사모, 평신도들에게 한국교회 부흥을 위한 비전과 방안을 공유하자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아울러 이경은 목사는 한기총 20주년 영적대각성운동본부 여성본부장을 역임하고 있는가 하면 순복음진주초대교회 담임, 연세대기독인연합회 총재, 국회 정치인·경제인·목회자 연합회 총재 등을 맡고 있다. 이 목사는 또"아바드리더 시스템은 성도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데 있어 가장 이상적이고 성경적인 시스템"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진주초대교회 이경은 담임목사

또 아바드 리더 시스템의 특징으로 교회에 충성된 일꾼(용사)이 세워지고, 창조의 목적이 회복되며, 용사의 꿈(큰 일을 행하고 승리하는 꿈)이 이뤄지고, 전 교회가 하나 되며, 교회가 반드시 부흥한다고 설명했다.

아바드리더컨퍼런스 5기 2차 세미나는 2011년 1월 26일(월)부터 28일(수)까지 청원진주초대교회에서 열린다. 이경은 목사는 지난해 이어 신년벽두부터 시작되는 5차 2기 세미나를 통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깨우는 불타는 횃불로 많은 사역자들에게 강렬하게 점화시킬 한해가 시작된다.



엄영수 목사 작품 / 한국기독사진가협의회 고문, 대광교회 담임

피종진목사 1월 국내·외 부흥성회


피종진 목사
010-5255-7777
jongjin7777@gmail.com
대한예수교장로회 남서울중앙교회 서울시강남구 개포동 968
T:02)3411-9191
F:02)401-7770
F:02)3411-9111

3(월) ~5(수) 인천 삼일교회(박영분 목사) ☎(032)468-3138
3(목) 자녀 평화의동산(원장 피종진 목사) 신년축복대성회 ☎(041)852-2211
7(금)~ 9(토) 안양 갈멜산금식기도원(담임 조성근 목사) ☎(031)472-7213
8(토) 오후 연무대군인교회 장병 진충세례식 ☎(041)742-3553
9(주) 오후 인천 송도성령교회(조강원 목사) ☎ 010-5878-3166
10(월) 오전 (사)한국복음화운동본부 신년하례 (국회 컨퍼런스룸관)
10(월)~ 12(수) 시흥 순복음교회(차갑선 목사) ☎(031)317-5017
13(목) 철야 서울 소망교회(연왕래 목사) ☎(02)573-7797
14(금) 오전 서울 밝은교회(정바울 목사) ☎(02)808-1675
14(금) 철야 부산 감람산기도원(원장 이옥란 목사) ☎(055)375-0831
15(토) 오후 서울 강남영성원(원장 하석수 목사) ☎(02)501-8695
16(주) 오후 성남 하나교회(김상경 목사) ☎(031)734-7663
16(주)~ 19(수) 서울 천호교회(신삼철 목사) ☎(02)472-0012
17(월) 오후 Henderson UN 강의
20(목) 오후 양평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총장 환승룡) CPC 강의
20(목) 오후 국제총회선교신학 ☎(031)968-9191
21(금) 오후 Henderson UN 강의
21(금) 철야 부천 성주산기도원(원장 이광원 목사) ☎(032)652-1009
24(월) 오전 첫사랑회복운동본부(김인나 목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24(월)~26(수) 충주 금식수양관(원장 김승자 목사) ☎(043)853-3990
27(목)~28(금) 구미 선산소망교회(이성순 목사) ☎(054)481-1941
29(토) 오후 남서울중앙교회 제직세미나(서울교육문화회관)

고문
주여...! 나를 고쳐소서 내가 낫겠나이다(렘 17: 14)
한국기독교찬양치유협의회
http://www.0675.us http://0675us.onmam.com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5시까지 무료교육
02)882-3181, 3191 / 011-710-9347, 010-5678-9950
총재
찬양치유사
http://www.0675.us
경사 풍계 윤의택씨 정 충 일 목사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문의 및 접수 : 010-5678-9950
장소 : 열린찬양교회(구로보건소 옆)
서울을동신학원
http://5678.onmam.com
매주 수요일 오후 2시-5시 무료교육
목장
수 요 연속사
문의 및 접수 : 010-4909-2895
장소 : 서울을동신학원(구로보건소 옆)
한국기독교찬양치유협의회
찬양치유사
http://www.0675.us
매주 토요일 오후2시
찬 양 치
장소 : 열린찬양교회(구로보건소 옆)
전화 : 011-710-9347 무료교육

소강석 목사! 2011년 신년축복대성회를 가졌다

새에덴교회(소강석 목사)가 2011년 새해를 맞은 가운데 신년축대성회를 1~3일까지 열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선교 헌신을 다짐했다.

신년벽두 새해축복대성회에서 (대하20:26~30) 말씀을 인용 "브라카 골짜기를 만들라"는 주제를 정하고 오전10시 30분, 오후 2시 저녁 7시30분 하루 세 차례에 걸쳐 집회를 열고 소강석 담임목사가 강사로 나서 말씀을 선포했다.

소 목사는 어두울 때 그 빛이 더 찬란하게 빛난다고 말하고 약속으로 이루어진 교회, 더 나아가서 약속을 만들어 가는 새에덴교회가 2011년 신년축복성회를 개최했다고 말하면서 20년 동안 한결 같이 해오던 신년축복성회가 2010년 올해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축복의 골짜기를 이룰 것이라고 소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성회에서 소 목사는 브라카 골짜기를 만들라(대하 20:26~30), 축복의 나팔을 불라(민10:8~10), 운명을 바꾼 사람 1 (수 2:8~15), 운명을 바꾼 사람 2 (룻1:9~18), 보석이 주는 교훈(출28:15~30), 최선의 삶과 축복(골1:27~29)이란 말씀을 통해 매 시간 은혜와 진리로 성도들에게 축복을 안겨주었다.



새에덴교회 신년축복성회

신년축복대성회에 참석한 10,000여명에 이르렀으며, 주옥같은 말씀으로 무장된 성도들은 2011년을 축복의 날개를 달고 힘차게 비상해 나아갈 것이다.

용인성민수양관 2011년 신년축복 대성회 열여

원장 김정훈 목사(용인성민수양관)는 2011년 신년 산상축복대성회가 개최됐다. 매년 1월에 열리고 있는 신년 축복대성회는 1차 1월 3~7, 2차 10~14, 3차 17~21일까지 3차에 걸쳐 개최되는데 이번 축복대성회는 담임 김정훈 목사가 강사로 나서며 축복교회 성도들은 물론 서울 경기지역의 많은 성도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문제를 해결 받으며, 소망하는 일들이 축복으로 이루어지는 새해를 열어가고 있다.

원장 김정훈 목사는 행함, 믿음, 성령충만으로 나가는 자는 반드시 내면적 믿음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강조하고, 또한 상 주실 때, 일 할 때, 하나님의 뜻에 맞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라고 전했다.

이어 믿음은 생각 속에서 말씀을 믿고 의지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때 거기엔 반드시 축복이 임한다면서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믿고 의지하며 성령충만으로 나아갈 것을 강조했다.



신년을 맞아 예배드리는 용인성민수양관

왕성교회 신년축복감사예배로 희망찬 새해 열어



길자연 목사

한기총 대표회장 당선자 길자연 목사 송구영신예배를 통해 "희망찬 새해로 갈은 마음, 같은 뜻"이란 표어로 영성회복의 충전으로 축복을 누리자고 강조

예장(합동) 증경총회장이면서 한기총 차기 대표회장에 당선된 왕성교회(길자연 목사)는 2011년 1월1일 10시와 12시에 신년을 맞아 축복예배를 드리고 희망찬 새해를 열었다. "같은 마음, 같은 뜻"이란 표어를 내 건 왕성교회의 태신자 목회는 수십 년 동안 목회 성격을 특징짓는 말이 되었고, 주일 예배를 통해 성도의 변화된 삶이 확인되고 다시 충전되어지며, 한 성도 한 성도의 신앙에 영성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게다가 말씀을 연구하고 삶에 적응하는 성경공부와 철저한 회개와 기도로 꾸준히 성장해 가고 있다.

아울러 이제 새로운 사명을 수행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 이르렀다 생각하고 새로운 부흥을 도모하여 한국 교회의 실제적인 부흥을 가로막고 있던 많은 문제점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영적으로 건강하며 한국교회 신앙적 전통을 확립하고 한국사회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영적인 지도력의 회복을 위해 전진하고 있다.

또 대 교회로서의 역량을 개척교회와 미자립 교회들에게 효과적으로 나눔으로 교회부흥을 돕고, 교회 성장을 저해하는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며 경쟁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협력하는 공동체적 분위기를 형성하여 함께 성장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날 길 목사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라는 말씀의 시작을 매우 중요시 했다. 하나님은 창조의 시작이 최선의 삶이되기를 원하신다면서 삶의 시작이 매우 중요하고 시작이 절반 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시작하느냐? 한 해를 시작하면서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할 것을 말하고, 우리는 엄청난 가능성을 부여 받았다고 했다. 하지만 우리의 열등감과 부정적 생각 때문에 10%도 사용하지 못하고 떠난다는 것이다.

길 목사는 삶에 변화와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생각을 가질 것이며 사회적 배경 불충분한 것들이 많지만 불평하지 말고 창조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며 다시 시작할 것과 절대로 포기하지 말자고 했다.

또 길 목사는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았을 때 결과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며, 말씀대로 살면 선하고 좋은 결과가 나타나며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른다고 했다. 한 해 동안에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말씀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신년축복의 말씀, 희망찬 말씀을 선포했다.

예장합신 2011년 새해감사예배 및 하례회 가져

합심단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의 길을 갈 때 축복의 대로 열려



예장합신총회 신년하례회

예장합신 총회(총회장 장상태)는 1월 4일(월)오전 11시 한국기독교연합회관 17층에서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식을 열고, 2011년 새해를 감사함으로 출발했다.

부총회장 권태진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신년감사예배에, 증경총회장 임석영 목사의 기도와 총회 서기 전 현 목사가 성경을 봉독, 총회장 장상태 목사가'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장 총회장은"오랜 신앙생활을 하다보면 형식, 외식, 습관에 젖어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 없는 탈선의 길로 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하지만 사람의 원래 지음 받은 목적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합심 단결하여 나아가자"면서"우리 총회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의 길을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의 대로를 열어 주실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총회와 전국 지교회를 위하여 증경총회장 김기영 목사, 대한민국과 민족복음화를 위해 증경총회장 안만수 목사,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를 위해,증경총회장 김정식 목사, 세계선교와 선교사를 위해 특별기도를 부총회장 정문영 장로 등이 기도하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회개기도를 했다. 이어 증경총회장 엄원규 목사 축도로 마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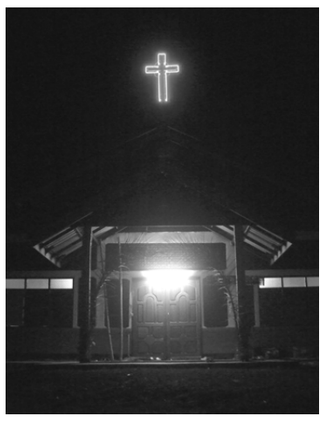
2부 하례회는 총무 박종언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역대 증경총회장들에게 총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증정하고, 참석자들로 서로 새해 인사를 가졌으며, 이어 증경 총회장의 새해 메시지를 함께 듣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예장합신 총회는 2011년은 30주년이 되는데 이 기념대회는 오는 5월2일부터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저스타임즈 jtpress@hanmail.net

어두운 태국 땅에 붉은 십자가를 세우는 사람

십자가를 세우는 일이라면 지구 끝이라도 달려가겠다는 탁종수 장로



태국에서 십자가를 세우며 불을 밝히는 탁종수 장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수도노회 경중시찰 한마음교회를 섬기는 탁종수 장로는 붉은 네온 십자가를 세워 태국 및 선교지 전역에 예수의 보혈로 가득차기를 바라고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다.

탁 장로가 이렇게 시작한 동기는 큰딸, 큰사위 때문이었다고 한다.

2004년 태국선교사로 파송 받아 태국인 교회를 개척하여 선교하는 큰 딸, 큰사위 덕분에 태국에 자주 오게 되었는데 올 때마다 느끼게 된 것은 캄캄한 밤하늘을 수놓은 붉은 네온 십자가로 가득한 한국과는 달리 태국에서는 십자가를 찾아보기가 어려워 안타까워하던 중 2008년부터 십자가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태국에 붉은 네온 십자가를 세우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한다.

탁종수 장로는 2009년부터 2011년 1월까지 모두 25개 교회에 네온 십자가를 세웠으며, 이는 뜻있는 지인들의 정성어린 후원과 협력을 바탕으로 시작하게 되었고 쉼 없는 기도와 헌신적인 봉사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때로는 힘든 순간도 많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네온관이 유리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비행기로 이동하는 중에 뜻하지 않게 깨뜨리는 경우 실망도 컸다고 말하면서 하지만 그때마다 기도와 인내로 승리의 십자가를 세워왔다고 말한다.

탁 장로는 68세의 나이에 40메다 높이에 십자가를 세울 때면 떨어져 죽으면 순교지 하는 각오로 후둘 거리는 다리로 종탑을 오르기도 했다. 또한 태국의 국토는 남한의 6배가 넘는 광활한 땅이기에 때로는 3000km(30시간)의 오지 장거리를 오가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붉은 네온 십자가를 세워야 한다는 굳은 믿음의 각오가 있기에 어디든지 지구 끝이라도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네온 십자가 1개를 세우려면 2십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10개가 모아지면 선교지 어디라도 달려간다고 말한다. 탁종수 장로는 더 많은 십자가를 태국 곳곳에 세우기 위하여 한국교회의 기도가 필요하면서 선교를 위하여 협력해 줄 후원자가 되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H.P 011-725-2735
계좌번호 231068-52-023170(탁종수 장로)

태국 치앙마이에서 본지 전승주 기자 (선교사)

근하신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목포주안교회
교회사명선언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설립하여 주신 주님의 교회임을 선언하며 다음과 같은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모상련 담임목사
1.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갑니다.
2. "올바른 예배"
"올바른 예배" 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삶이 회복되어 주님께서 주신복을 누립니다.
3. "네 이웃을 네몸같이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 사랑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며 행복하게 해줍니다.
주일예배 시간 장소

요일	예배	시간	장소
주일	낮예배	1회 오전 7시 30분	3,4층 대 예배실
		2회 오전 11시 30분	3,4층 대 예배실
	저녁예배	오후 7시	3,4층 대 예배실
주일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3,4층 대 예배실
주일	금요예배	저녁 9시 30분	3,4층 대 예배실
주일	새벽예배	오전 5시	3,4층 대 예배실
주일	청년부예배	오후 5시	5층 영산강홀
주일	대학부예배	오후 5시	5층 두란노홀
주일	유치부	1회 오전 9시 30분 2회 오전 11시 30분	2층 새롬방
주일	유초등부	1회 오전 8시 30분	3,4층 대 예배실
		2회 오전 11시 30분	3층 아동센터
		3회 오후 2시 30분	3,4층 대 예배실
주일	중등부	오전 9시	2층 영산강홀
	고등부	오전 11시	2층 영산강홀
	영어예배	오후 1시 30분	5층 두란노홀

전남 목포시 북항동 1671-15(북항주택단지)
대표전화 : (061)272-4908, (061)278-0692 팩스번호 : (061)278-0693

근하신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공덕교회
표어 : 말씀의 은혜 안에 행복한 교회

담임 서명범 목사
담 임 : 서명범 목사(본지 운영이사)
시무장로 : 송두현 조길수 박성현
교육전도사 : 이광수
예배안내 : 주일예배 오전 11시 오후 2시
삼일 밤 오후 8시 금요기도회 저녁 9시
주소 : 충남 공주시 봉황동 295번지
전화 : 041)853-9966 855-0691
홈피 코헬렛 http://lov153.cafe24.com

근하신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천성교회


예배모습

담임 권세능 목사
▷예배안내

구 분	시 간	구 분	시 간
주일 낮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새벽 5:00
주일 오후 예배	오후 1:30	유초등부예배	오전 9:00
수요 저녁 예배	저녁 7:30	중고등부	주일 오후 3:30
금요 철야 기도	저녁 9:00	청년회모임	토 저녁 8:00

451-806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신궁리 245-4
☎. 031)656-5830
H·P 010-8585-9137

근하신년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두란노교회

담임 곽완근 목사
(본지 운영이사)
충남 공주시 봉황동 96번지
전화 : 041-854-3676
HP. 018-320-1507



가정예배

소진우 목사 (예복교회 담임 / 본지 사장)

1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하여

성경: 사도행전 2장37절-40절 찬송 442장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꿈을 꾸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은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한 방법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을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회개하여 각각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즉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면 성령의 선물로 받고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마다 성령의 선물인 은사를 가지고 가정과 교회에 유익한 증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 성령의 선물을 받았다면...

성경: 사도행전2장41절-42절(1) 찬송 518장

오늘날 성령의 선물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도덕적 삶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본문은 성령의 선물을 받은 성도라면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42절입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즉 성령의 선물을 받았다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보여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마다 성령의 선물을 받은 가정이라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보여주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3 신앙과 생활

성경: 사도행전2장41절-42절(2) 찬송 518장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면 믿음도 좋고 생활도 좋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과 생활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고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2절을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성령의 능력을 받고 신앙과 생활이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역시 성령의 능력을 받고 신앙도 달라지고 생활도 달라지는 멋진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4 날마다 부흥하는 가정

성경: 사도행전2장43절-47절 찬송 265장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꿈을 꾸고 성령의 능력으로 모이기를 힘쓰며 신앙과 생활도 아름답게 성숙해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그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4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숙한 신앙생활을 한 결과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고 초대교회는 부흥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역시 성숙한 신앙생활을 통해 가정과 자녀들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날마다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5 복음의 선포자로 살자

성경: 사도행전3장1절-10절(1) 찬송 173장

성령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본문에 나타난 사도들 특히 베드로를 통해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어부로서의 삶을 다시 시작하려고 했던 그가 앉은뱅이를 고치는 복음의 선포자로 변화되었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 역시 세상의 빠져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받아 복음의 선포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6 당당히 선포하라!

성경: 사도행전3장1절-10절(2) 찬송 93장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기 위해 성전미문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때 앉은뱅이가 구걸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6절을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하고 말씀합니다. 즉 능력의 이름 치료의 이름 기적의 이름인 예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역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야 합니다. 질병과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히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7 선포를 넘어 섬김으로

성경: 사도행전3장1절-10절(3)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미문에 앉아 있던 앉은뱅이에게 예수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한 가지의 행동을 취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힘 없이 앉아 있는 앉은뱅이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 줍니다. 즉 복음의 선포만이 아니라 복음의 섬김의 모습까지 보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 역시 복음만을 선포하는 가정을 넘어 섬김의 모습까지 보여 주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8 예수그리스도가 해답입니다.

성경: 사도행전3장11절-26절 찬송 94장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미문에 앉아 있던 앉은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세웁니다. 그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기이히 여기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12절을 보면 '이 일을 왜 기이히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6절을 통해 '예수로 말미암아 이 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즉 개인의 능력과 권세가 아니라 오직 예수의 권세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역시 우리의 능이 아닌 오직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승리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9 말씀을 선포하면

성경: 사도행전4장1절-4절(1) 찬송 235장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여 사도들을 잡아 가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생명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4절을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오천이나 되었더라" 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말씀을 아무리 거부하고 싫어할 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에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마다 살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당당히 선포하여 믿는 무리가 우리들 때문에 많아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10 싫어해도 해야 한다.

성경: 사도행전4장1절-4절(2) 찬송 138장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복음전하는 것을 싫어하고 사도들을 잡아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 출 수 없었습니다. 세상이 싫어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의 지상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세상이 싫어해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역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때로는 가족들이 싫어하고 때로는 이웃이 싫어 할 지라도 밤처럼 지혜롭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11 말씀이 선포되면...

성경: 사도행전4장1절-4절(3) 찬송 442장

아무리 세상이 하나님의 복음을 싫어 할 지라도 말씀이 선포되면 반드시 누군가에게 들리고 하나님의 제자가 됩니다. 문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오천이나 되었더라" 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부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역시 가정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있는 곳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고 축복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누리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2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면

성경: 사도행전4장5절-12절 찬송 177장

베드로와 요한은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 앞에서 신문을 당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의 복음을 당당히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맞는지 의심이 갑니다. 그러나 분명히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의 복음을 전했다고 8절을 통해 말씀합니다. 이처럼 성령이 충만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역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훈련을 받았고 배웠다고 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있을 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면 성령의 능력을 받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3 문제를 만났을 때

성경: 사도행전4장13절-22절 찬송 363장

베드로는 이제까지 전혀다른 모습으로 관원들과 장로들 앞에서 당당히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 선포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이상히 여겼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사건이 어떻게 된 사건인지에 대해서 기도보다는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15절을 보면 '서로 의논 하여 가로되'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들은 어떤 문제를 만났을때 기도보다는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에 의지한 의논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도들을 핍박하게 되는 큰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역시 어떤 문제를 만났을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믿음의 가정이라면 의논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14 기도 할 수 있다면

성경: 사도행전4장23절-31절 찬송 484장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나고 바로 동료들에게 가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에 대해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 합니다. 사도들은 문제를 만났을 때나 문제를 해결했을 때나 한결같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역시 문제를 만났을 때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나 항상 기도하는 가정이 됩시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사도들처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 마침내, 새아침은 오고 있는 걸까



박영남
시인, 문학평론가, 건국대학 교수

이렇게, 겨울밤은 너무 길어서 우리들 뒤척이는 짧은 꿈으로는 다 채우지 못한다. 누군가의 따스한 손이라도 잡지 않으면 참으로 혼자서 견디기 힘들어 질 때 심한 상처도 아닌데 어디선가 끝없이 피가 흘러내리는 아픔을 느낄 때 더 이상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퇴색해버린 우리들 기념사진 그리고 단추만 남기고 삭아져버린 옛날의 제복과 신을 수 없이 닳아진 신발들 해묵은 편지뭉치 상자들 그렇게 낡은 것들을 쓰레기 소각장에 버리고 올 때 양토원의 노파가 천장을 쳐다보며 잊어버린 자기 나이를 더듬더듬 헤아리고 있을 때 해가 지고 아직 외등이 켜지지 않은 어둑어둑한 골목을 지나고 있을 때 마지막 상연이 끝나 관객이 다 떠나버린 텅 빈 극장이나 영업을 마치고 테이블 위에 의자를 뒤집어 놓는 컴컴한 심야 술집이거나

마지막 남은 동전을 공중전화에 넣고 멀리 있는 사랑하는 이의 이름을 목이 메어 부를 때 마침내, 그처럼 오래토록 기다리던 것은 갑자기 쏟아지는 눈처럼 우울한 것들을 덮어 버리기 위해 순백의 색깔로 우리들 곁에 응답처럼 와 줄까 새 것은 가장 낡은 것 속에서 움트고

또 새 것은, 무너진 터 위에 다시 세워지는 것이라 했지 오랜 길을 걸어 온 자 만이 그 빛을 볼 수 있고 가장 어둡고 긴 밤을 눈물로 지 샌 자 만이 밝아오는 새해 달력을 웃으며 벽에 걸 수 있다고 했지 동쪽에서 뜨는 아침 햇빛이 서녘의 산마루에 먼저 비치듯 아침은, 아팠던 밤의 그 자리에 먼저 와 앉는 다는 걸 우리는 믿어도 되겠지 마침내, 새아침은 우리를 향해 오고 있는 걸까

근하신년

커버넌트 성경대학

(Covenant Bible College) (신.편입생모집)



총장 **경한수** 박사

- 연세대, 파리대학 졸업(B.A)
- 장로회 신학대학원(합)(M.Div)
- 독일 괴팅겐대학(Th.M)
- 독일 빌레펠트대학(Th.D)
- 신학대학 교수 및 출강(15년)
- 현.
  저자 교회 담임목사
  목회자 성경대학원 원장
  Jerusalem Biblical Academy 총장
  Western Covenant University총장
  Covenant Bible College 원장



박양우 목사
대전 커버넌트성경대학장

- 서울신학대학(B.A)
- 한남대학교 사회학 석사(M.A)
- Jerusalem Biblical Academy(Th.D)
- 목회자성경대학원졸업
- 현
  한사랑교회 원로목사
  대전신학 교수
  퓨리탄신학대학 교수
  민복목회신학연구원 교수
  경찰청 임원

역사와 목적

본 커버넌트성경대학은 목회자성경대학원으로 출발하여 17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국에서 22,000여 명의 목회자들이 성경대학원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각 지역교회와 공동체 또는 세계 각 나라에서 말씀사역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운동을 확장시키고자 "커버넌트성경대학" 으로 재도약 합니다. 본 커버넌트성경대학은 성경을 가르치는 신앙의 세계관에 입각하여 진리와 자유와 평화에 필요한 실천방법을 연구 및 교수하며, 국가와 세계 그리고 하나님나라와 교회사역에 미래지향적인 유능한 말씀 신학자, 목회자 양성을 위해 순수 성경만을 가르친다는 것이 목적이요 사명입니다.

커버넌트성경대학의 특징

1. 주 1회(90분씩 3-4강좌) 2년 8학기제로 수업을 진행하며 성경 66권을 빠짐없이 공부합니다.
2. 성경에 관한 250여 권의 저서를 저술한 경한수 박사의 책 중 180권을 시스템화하여 역사와 함께 '통전적' 으로 연구 (각권 ; 구조분석 / 신학영성세미나 / 문답성경낭독 / 장별 · 단락별 / 절별 영성설교) 주해하며 철저한 성경전권을 연구합니다.
3. 커버넌트성경대학을 통하여 성경적 세계관과 인생관, 신학방향의 전환점을 만들어줍니다.
4. 커버넌트성경대학은 세계평화성경공의회의 기관으로서 이스라엘과 미국의 합법적인 법인으로 등록되어있습니다.
5. 성경 중심 신학관, 기독교 세계관을 통해 교회와 사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할 목회자, 교수, 선교사 및 평신도 지도자를 양성하는 학교입니다.

모집대상

학 부: 성경66권 전체를 통전적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분 (2년 8학기 과정 / 방학없이 1년4학기)
"필리핀의 트리니티대학" (Trinity University) B.A.(학사학위) 교류과정포함,

연구원부: 성경(구조분석 / 신학영성세미나 / 문답성경낭독 / 장별 · 단락별 / 절별 영성설교) 주해하며 철저한 성경전권을 연구하며 강단에서 선포하고자하는 목회자.
"Jerusalem Biblical College" 와 "Bethlehem Bible College" 에서 M.A.와 Th.M, M.Div, (석사학위) 교류과정포함,

특 전 : 1. 농어촌교회 및 작은교회 목회자부부는 장학혜택을 드립니다.
2. 성경66권 전체를 통전적으로 연구하여 전도자, 선교사로 사역을 원하시는 분도 장학 혜택
3. 교회학교 교사로 헌신하시는 분도 장학 혜택

수업일시:

수업장소: 대전 커버넌트성경대학 :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1동 134-105 (한 사랑 교회)
안내전화 : 042-526-6378 / 010-2872-4357, E-mail : ywp63@hanmail. net

구원론

예수님의 보혈IV

현병우 목사
임마누엘 영성원 원장
본지 부사장



예수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듭난 부활의 산 소망이 있게 하셨는데 어떤 산 소망인가 곧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이 있다고 하셨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 하신 것이라 하셨습니다. 마25장에는 달란트로 비유했고 눅 19장에는 므나로 비유하셨는데 열성, 다섯 성을 차지하라고 하셨고 마태복음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예하라고 하셨습니다. 성에는 성주와 성민(백성)이 있는데 열성과 다섯 성을 다스리는 것. 즉 왕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찬송만 하는 것이 아니다).

롬5: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육체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라 연약하다 죄에 연약하다는 것이다 육체에 뱀의 독이 있으므로 육체가 뱀의 독이 요구하는 그것에 연약하다는 것이다, 죄만 짓고 있을 때에) 기약대로(창세전부터 예정하신) 경건치 않은 자(거룩하고 참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일체 영광의주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못 된다는 것, 성경의 경건은 영광의 하나님을 말씀하는데 창조주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는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7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 하셨느니라. 우리가 구원 받을만한 자요 사랑받을 만한자요 하나님을 기뻐하실만한 자라서 구원받았다면 예수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는 없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고 죄만 짓고 살았고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으나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사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렇게도 놀라운 사랑의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주신 은혜입니다.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놀라운 말씀입니다..의롭다함(칭의) 롬8:33,34절의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하셨습니다.

의로우신 예수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가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 되었은즉 화목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피를 인하여 우리가 더욱 기뻐할 수 있게 되었고 진노하심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고 하나님과 원수 된 자였고 원수 된 짓만 하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아들 예수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려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속하시고 구원 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더욱더 두려워 떨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일차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오직 화목하게만 되어있는 것입니다.

11절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이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인지는 아무리 감사드리고 감사드려도 부족하기만 합니다.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어떤 허물과 죄?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풍속을 좇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사단마귀의 자식들, 독사의 새끼 뱀의 새끼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 된 자들이었고 원수 된 짓만 하던 자가 우리였는데 그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셨고 그 아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지셔서 다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은 것이요 이제 우리는 예수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예수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는 얼마나 더 사랑 하시겠습니까?

펼쳐진 한 해 들판에 서서

저 하늘 끝에서
내려 내려
한없이 쏟아지는
찬 바람
흰 눈에
머리를 풀고
멱 감으며

눈물 마르도록
울어보고
눈물 나도록
웃어보고 싶다

산다는 것은 얼마나
경이로운 것인가〈연〉

*하루 한단 기쁨으로
영성의 길 오르기*

오늘 이 순간은
어제 숨진 이가
그토록 얻고 싶었던
바로 그날입니다.〈연〉

이주연의 산마루서신에서

천하에 예수 이름 이외에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행 4:11-12)

장한국 목사
주사랑교회



구원이 어디로부터 올까? 오직 예수로만이 구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을 다음과 같이 생각하고 다시 한번 고백하며 그 구원의 은총을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1.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다. (원죄가 있다)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세상에선 성선설, 성악설로 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인간은 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시51:5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여 모친이 죄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인류 시조인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며 범죄하므로 그것이 원죄요. 그 거역의 씨가 아담후손들에게 그대로 있어 가시와 엉겅퀴만을 내는 저주의 땅과 같이 죄인으로 나서 일평생 죄의 열매만 맺으며 사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요 마귀의 종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언행심사는 전적부패, 전적타락 속으로부터 나오는 죄의 열매들뿐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도 내가 원하는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는 그것을 행하니 이를 행하는 자는 내속에 거하는 죄니라. 원치 않는 죄만 짓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저주의 삶인가?

2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곧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곧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지요. 이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셨고 고난 받으시고 피 흘리며 죽으셨습니다. 따라서 ①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도 없다하신 바대로 흠 없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몸을 드려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영원한 속죄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히 9:12) ② 십자가 고난을 받으실 때 우리가 받을 지옥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써 우리의 형벌을 받지 않도록 제하여 주셨습니다. ③ 율법이 요구하는 완전한 순종을 우리대신 순종하시어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셨으니 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를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시켜 의롭다함을 받은 자 된 것 곧 칭의 입니다. ④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하시고 계십니다. 죄인이었던 우리, 마귀의 종노릇만 하던 우리를 위해서 이처럼 대신 죽으심, 대형, 대신순종, 중보하심을 인하여 우리로 죄와 사망에서, 지옥형벌에서 구원하신 구세주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3. 이신득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게 되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됐습니다. 또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서 믿게 하신 것이요. 우리의 이성이나 노력으로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것이지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하신다 하신 말씀처럼 죽어라 믿지 않으려는 나를 불러 끌까지 복음 주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곧 이신득의, 이신득구입니다.

또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에 이르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사역을 그대로 받아들여 믿는 것이며 우리가 아무리 의로워지려해도 절대 불가능한 것이니 이 얼마나 크신 주권적 하나님 은혜역사인가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누구나 이 예수 믿어 구원받고 천국 가는가요?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이 이미 택하신 영생주시기로 택정된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불러 예수 믿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행 13:48 말씀과 같이) 불택자는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닌 것이지요. 오직 자기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예수 믿은 후에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가? 그렇지 않지요. 오직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니라.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함에도 우리가 연약하고 악하여 믿음으로 하지 않을 때는 이것이 죄요. 이를 말씀과 성령의 깨우침을 통해 회개하여 올바른 영생의 열매 맺는 길로 돌이켜야 되지요. 이것이 회개요. 따라서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사모해야 되지요.

4.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

예수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 세례는 롬6:3-5에서 진정한 세례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이 되고 또 그와 함께 장사된 것이고 또 예수와 함께 부활에 연합하리라. 즉 우리의 옛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 죄의 몸이 멸해져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새 피조물 됐음을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세례는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짐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인이 됐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자기 몸과 정과 욕심을 이미 십자가에 처형하였느니라.(갈 5:24)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에 연합된 자로서 즉 산자로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 산자된 그리스도 부활에 연합한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힌바 되었느니라.(엡 2:6)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됐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됐음을 확신시켜주십니다.

5.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세례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제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제물 즉 산 제물이 됐음을 알 수 있지요. 우리 몸이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갈 2:20)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된 한 몸 됐음을 믿었다면 자기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늘 드려지는 것이 되고 이것은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 했습니다.(롬 12:1) 그리고 이 예배의 삶은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르는 믿음의 삶이 역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길이 됩니다. 이것이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요 더 나아가 예수님처럼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시는 주님이십니다.(요1서 3:16)

聲明書

주사랑교회 장한국 목사 반성경적문제 질의 답변서

먼저 제가 소속해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총회 총회장 성홍경 목사님 외에 모든 분들과 한국교회에 사과드립니다. 문제는 약 20년 전 신학을 졸업하고 목회에 첫발을 내딛는 즈음에 경험부족으로 인하여 성경 해석상 문제가 되었다는 점에 대해 뼈저리게 느낀바 있어 이미 오래 전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인의 소개로 웨신총회에 가입을 하게 되었고, 웨신은 내게 목회에 바른 길잡이가 되었고, 목회에 유익함을 얻어서 목회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오랜 전 이미 문제의 자료와 책 등이 기억에서 사라졌는데 이제 이 일로 인하여 모 잡지 등에 기사가 게재 되었고, 마치 그 일이 현재 일어난 것처럼 보도된데 대해 매우 유감스러우며, 한편 죄송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총회와 한국교회에 누를 끼친 것만 같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본인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 구원하심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선택하심, 예정하심, 그리고 창조하심을, 또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성육신하여 속죄구원하심, 칭의로, 또 계속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심을, 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중생케 하심, 성화시켜 가시며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장성케, 그 형상을 이루어 가시며, 결국 성령하나님이 그리스도와 똑같은 영광된 몸으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또 주님이 구원해 주신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주 재림을 사모하여, 어찌하든지 주님이 가신 그 발자취를 따르는 자가 되도록, 특히 큰 환란이 닥쳐 순교하게 되기까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 가고자 하는 것이 제가 믿는 하나님 말씀이요, 저의 신앙이기도 합니다.

아래는 교회와 이단에서 반성경적인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님의 몸 된 교회와 복음진리를 통한 구원운동등을 위하여 귀사와 귀 협의회에서 헌신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귀사가 질의서 내용을 보니 약 15년 전 의 문제가 되었던 원고자료인데 그 당시 이미 폐기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명인의 투고를 조금도 사전검증이나 확인도 없이 귀 잡지에 게제 되었다는데 대해 엄청난 충격과 아픔마음 뿐입니다. 하지만 이번 어느 제보자에 의해서 귀사가 답변할 기회를 주시니 감사드리면서 신실하게 짧고 제한된 문자로 어려울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해 다음과 같이 말씀드립니다.

인간의 영혼 창조에 대한 성경근거는

창 1:26-27에서 여섯째 날에 사람 창조하심과 창 2:1-2에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숙명이 이미 정해져있다고 보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창세전 선택, 애정을 통하여 오늘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 하나님 뜻대로 이루시는 구원역사 안에서 자신의 의지 통해 예수 믿게 되고 하나님 말씀 순종이라는 방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자신 속에 이루기까지 계속 열심히 신앙생활 해가는 것이지(고후 5:10, 계 22:12) 이미 숙명이나 운명으로 되어져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롬 3:22의 말씀을 전면 부인하는 것인가?

전면 부인이라는 얼토당토 않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고 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죄사함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심으로 인한 칭으로 인하여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음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 죄악을 허용하셨다 했으니 하나님이 죄짓게 했는가?

선악과 죄악을 짓게 한 뱀, 즉 마귀는 그 정체가 피조물인 타락한 천사장 으로서 온 천하를 꾀는 자 하와를 유혹하여 범죄 하게하는 자이지요(계 12:8) 모든 피조물은 조물주의 뜻을 위하여 쓰임 받을 뿐이며(골 1:16), 마귀도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 사탄까지 역사 하나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허용범위 안에서만 일을 욥기서 1:12, 2:6 등 성경 전체적으로 우리는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므로 죄를 작정하거나 죄짓게 하는 죄의 원인자가 결코 없음을 믿습니다.

장 목사님의 구원관은 성경 어디에 근거하는가?

저의 구원의 고백은 나를 회개하게 연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속죄구원 해주심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후 보혜사 성령을 내게 부어주시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며 역사하심을 따라 신앙생활하게 하신 것입니다(행 2:38과 같이). 따라서 예수는 마 1:21,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으로, 또 여기 자기 백성은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자녀들임을 의미하고, 이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 안에 있었던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히 7장에서 자세히 말씀하신바대로 세상 살렘나라의 왕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과 같고 죽음 없이 영원히 사시는 분이시며(히 7:1~3, 7:8) 그 멜기세덱과 똑같은 다른 제사장이 곧 멜기세덱 반차를 좇는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씀하고 계시니(히 7:15, 21)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멜기세덱과 직접 관계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이란 말이 맞지 않다는 주장에 대한 그 배경에 대해서

마 1:21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지요, 그리고 갈 4:6 우리가 아들인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있으니, 즉 하나님 아들인고로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하시는 것이요 불택자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였을지라도 결코 예수 믿을 수 없으며, 지옥가게 된다고 저는 봅니다. 즉 택자 구원이지요, 따라서 사람의 의지 자체로 예수 믿으면 구원, 그 의지 자체로 안 믿는 경우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 대하여 반드시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 받게 하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행 13:48 참조).

성경 해석을 영해하고 있지 않는가?

질문하신 영해라는 의미가 좀 분명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무 실재나 근거가 없는데 상징적으로, 풍유적으로 해석하는 소위 알레고리를 혹 영해라는 단어로 말씀하신다면 이는 내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나는 성경의 계시된 문자와 문맥을 절대 근거로 해석하며, 또 믿고 있으며 그 문자와 문맥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계시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또한 살피는 마치 되새김질하듯이 하여 계시된 성경 말씀 자체를 내 영을 살리는 양식으로 삼습니다.

주 사랑교회에 와야만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하셨고, 그 예수님 믿고 그의 말씀을 믿고 사는 주님의 모든 교회가, 즉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의 생활이 곧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닌가요

144,000이란 의미는?

이는 계 7장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자들의 수를 말하지요, 이는 장차 환란 날에 쓰임 받게 될 하나님의 종들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음부와 카톨릭 연옥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카톨릭 연옥은 우리가 음부로 깨닫는 것과 전혀 다르다, 즉 그들의 연옥설은 모든 믿는 자들이 모두 다 연옥이라는 사후의 장소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과 연옥에서 그들의 공덕, 즉 헌금, 기도, 헌신 등의 공덕을 쌓은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 정화되어 천국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사후 영의 중간상태의 장소가 곧 연옥이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백 보좌 심판도 부정하며 이신득의, 이신득구의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부정하며, 인간의 행위로 즉 자력구원설에 비탕을 둔 것이 연옥설 아닙니까?

이는 성경에서 나오는 음부와는 전혀 다르다고 봅니다. 연락했던 부자가 사후에 음부에서 고통당하면서 아브라함의 품의 나사로를 보고 있는 것이 곧 음부이지요, 구약의 '스올'이라는 지하세계, 즉 사후 묻히는 무덤이나 요나를 삼킨 물고기 뱃속 같은 곳을 구약에서는 음부로 나타내기도 하지만 신약에서는 지옥인 '게헨나'와 달리 '하데스'라는 원문상 차이를 두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이 있는 생전에 하늘영생을 위해 열매 맺도록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탕태우는 삶을 살았을 때는 이런 자가 사후에 비로소 깨닫는 그 상태를 곧 음부로 계시했다고 봅니다.

목회자칼럼

목회자가 알아야 할 교회법률(敎會法律)

(목회자가 억울한 치리를 받을 수 있으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9. 회의 법에 관하여 (회의의제원칙들)

(2). 가결 종족수가 규칙에 있을 때.

예컨대 재적회원, 출석회원, 재석회원 또는 총투표수의 과반 수 이상 또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등의 명문규정이 있을 때는 결석, 기권, 백표, 무효표 등은 어떤 효력(效力)이 있는가는 다음과 같다.

①, 재적회원, 출석회원, 재석회원의 과반수 또는 3분의 2의 찬성을 요할 경우(가결정족수가 있는 경우)에는 상기 모든 표는 반대표 즉 부표의 작용을 한다.

②, 총투표수의 3분의 2 또는 과반수의 찬성을 요할 시는, 결석과 기권과 백표는, 총 투표수에 계산되지 않으므로, 가부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다만 어떻게 결의되든 다수에 따르겠다는 정치적 의미만 가질 뿐이다. 그러나 무효표는 총투표수에 계산되므로, 부표에 계산되지는 않으나, 결과적으로 부표의 효력을 발생한다.

여기서 "3분의 2"의 의미를 상고코자 한다. 어떤 의안에서 3분의 2의 찬성을 요한다고 하는 것은, 반대자보다 찬성자가 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 말은 회원 절대다수가 찬성하여야 가결된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3분의 2 가결"에는 회의가 소집한 1회에 마칠때(예-제직회 또는 공동의회 등)는 "총투표수의 3분의 2"라고 하고, 회의가며칠간 계속되거나, 장기간 계속될 때는, "재적회원 또는 출석회원 3분의 2"라고 한다. 이 경우 재석회원이나 총투표수의 3분의 2라고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회의가 장기간 계속될 때는, 마칠 때쯤 되면 회원들이 과반 수 이상 조퇴하여 버리고, 소수가 남아 회의 하기가 쉬우므로 소수가 남을 때 총투표수의 3분의 2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전체 회원수에 비하면 소수에 불과할 수 있고 따라서, 총투표수의 3분의 2는 회원 절대 다수의 찬성으로 하는 원리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회적인 회의는 처음과 나중의 회원수가 차이가 없으므로 재석과 출석회원 또는 총 투표수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재석이나 출석회원이나, 총투표수의 구별에 별 의미가 없다. 따라서 어느 것을 택하여 3분의 2의 찬성을 요한다 하여도, 3분의 2의 원 의미에는 영향이 없다. 그러나 회기가 몇 일씩 걸리는 경우는, 처음과 나중이 전혀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3분의 2의 의미(意味)를 살리기 위하여, 재석(在席)이나 총투표수라는 말을쓰지 않고, 반드시 재적(在籍) 또는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贊成)을 요한다라고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3분의 2의 찬성은 회원절대 다수(多數)의 찬성임을 잊어서는 아니된다.

(3). 가결. 부결. 미결

선거에는 당선, 의제에는 가결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①, 전원일치의 가결(만장 일치가결) : 반대자가 한 사람도 없는 경우이다.

②, 절대다수 가결 : 거의 전원 일치인 경우이다.

③, 3분의 2 이상의 가결 : 가(可)편이 적어도 부(否)편의 갑절이 되어야 한다.

④, 과반수 가결 : 출석회원의 반수 이상의 가결을 말한다.

⑤, 종다수 가결 : 많은 수를 따라 가결한다.

⑥, 의장의 결정권 행사, 표결의 결과가 가부 동수인 경우에 회장이 가편(可便)이나 부편(否便)에 가담(加擔)하여 결정짓는 것을 말한다.

※ 원상유지(原狀維持)의 원칙.

회장의 결정권을 "부(否)"로 아주 정해두는 것을 말한다. 가결은 원상을 깨뜨리기 때문이다. 이 원칙은 회칙에 정해져 있어야 하는 것이요, 결의로는 못한다.

⑦, 추첨결정 : 회장(會長)이 가, 부 어느편에도 가담(加擔)하기 싫은데, 결정을 해야 할때 추첨으로 결정짓는 일도 있다.

⑧, 부결(否決) : 반대하는 수가 많으면 부결이 된다. 부결(否決)된 의안은 그 날의 회의에서는 다시 의제(議題)로 나올 수 없다.

㉮,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의 원칙 : 한가지 일을 같은 회기(會期) 안에서 두 번 의논(議論)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 회원들은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의 원칙을 준수하고 의결에 복종해야 한다.

※. 기권(棄權) : 권리를 포기 곧 버린다는 뜻이다. 가(可), 부(否)의 태도를 표시하지 않는 행동이다. 그러나 기권은 부(否)편에 가담한 셈이 된다. 가급적(可及的)이면 기권(棄權)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런데 혹자는 기권(棄權)을 가(可)편에다 합산(合算)을 하는 물지각한 자들도 있으니, 매우 유감스러운 일인 것이다. 정확한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이 또한 개혁주의 신앙의 원칙인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이 원 석 목사
은광교회 담임,
본지 고문

한국교회의 신흥 이단종파-성공교(成功敎)



이준철 목사
칼럼리스트

한국교회는 역사적으로 매우 다양한 종교적 토양 위에서 성장해 오고 있다.

그 제일 밑바닥에는 샤머니즘의 무속신앙이 깊게 자리 잡고 있고 그 위에 불교가 전래되어 성장하면서 무속신앙과 야합되었고 또 그 위에 유교가 들어와서 역시 이미 복잡한 종교적 토양과 혼합되면서 무속적 민속종교화 되었다.

이와 같이 오랜 역사를 지나면서 세계종교의 퓨전문화로 발전되면서 한민족만의 독특한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었다.

여기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초기에는 기득문화의 극심한 반발과 배타적 과정이 있었지만 오늘날 세계 기독교 위에 거목으로 당당하게 성장을 이루고 있다.

지금 한국교회는 세계 선교의 제2위 국가이며 기독교 인구는 약 9백 만 명에 이르고 있다. 즉, 국민 4명 중에 1명은 기독교인이므로 통계적으로는 가히 기독교 국가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스타벅이라는 사람은 "한 사회에 기독교인이 5%만 있어도 그 기독교인 그 사회를 변화시킨다."고했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의 약 20%의 기독교인들은 한국사회와 동북아시대에 세계를 위해 어떠한 영향력과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이러한 결정적인 질문에 양식 있는 기독교인들은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매우 자조적으로 비관적인 입장이다.

즉, 한국 교회와 기독교 사회가 전염병적이고 복합중증으로 병들어 있다는 것이다.

안타까운 문제는 거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세속적이고 무속적인 이단적 성공교에 깊게 빠져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영적인 병은 이단종파의 특성대로 매우 심각하게 한국교회를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병의 원인은 세속적 성공주의라고 하는 신종 영적 바이러스이다.

하여 한국 기독교는 이미 순수 기독교가 아니라 오염, 변질, 왜곡된 "성공교(成功敎)화 되어있다.

소위 '목회성공'과 '교회성장'은 무한경쟁사회에서 적자생존하는 가장 그럴듯한 명분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한국교회는 이제 어찌할 뚜렷한 방도가 없어 보이는 중세 로마 캐톨릭의 말기현상과 아주 흡사한 상황에 처하고 말았다.

과거 그 시대에는 마틴 루터와 개혁자들의 종교개혁이 있었지만 오늘날 한국교회는 과연 어떤 처방이 적절할 것인가?

두말 할 것 없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야만 하는데 그 네비게이터는 어디에 있으며, 있다면 한국교회는 그 지도(指導)를 따를 것인가?

마라나타!

犬公들께 미안한 개판 세상

백승목 칼럼리스트



양심고백차원에서 '자진신고'를 받은 결과 11일 현재 120명 중 41명이 1차 밝혀지고 있다.

인간들은 무언가 못마땅하거나 억울할 때, 욕이나 악담 대신에 아무런 까닭도 없이 '개판'에서 시작하여 '개 같은', '개만도 못한', '개보다 더한' 이라는 등 무시로 罪 없는 '개'를 빗대어 인간의 허물과 사악함을 빗대는 게 예사다.

만약 犬公들이 인간의 말을 그대로 알아들을 수 있다면 (특히 빨간 물 먹은 것들이) 겁핏하면 들이대는 명예훼손이라는 소송을 천 번도 만 번도 더 제기 했을 것이며, 지법이고 고법이고 개들의 명예소송으로 개판이 됐을는지도 모른다. 여하튼 개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보면 한마디로 개판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어쩌다가 기독교 10계명보다도 더 간단한 단군할아버지의 팔조금법(八條禁法) 하나로 수천 년을 착하게만 살아 온 우리사회가 이렇게 됐을까?

얼마 전에는 청목회의 청원경찰입법로비가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라 여론에 뭇매를 맞더니 이번에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치안정보의 수집, 교통의 단속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임무'로 하는 국립경찰 총수인 경찰청장까지



지낸 강희락이라는 자가 속칭 '함바게이트' 몸통으로 드러나 이 세상이 정말로 개판임을 몸소 깨우쳐 주고 있다.

함바라 하면, 왜 말로 飯場(はんば), 즉 광산이나 토목건설현장 인부들의 임시숙소 겸 밥집을 뜻하는 것으로 70.80년대 이후 대형토목공사와 건설현장이 도처에 생기면서 서민 생계형 소규모 함바가 대규모 기업 형 치부수단이 되었다.

함바게이트 브로커와 '악어와 악어새'가 된 경찰청장

이권이 있는 곳에 비리가 따르고 비리의 몸통은 언제나 그렇듯이 '힘 꽤나 쓰는' 권력자가 되게 마련이며, 비리의 몸통은 일선에서 긁어모은 더러운 돈으로 개인의 사치낭비와 호의호식은 물론 입신출세와 영달을 위해 쓰게 마련이다.

그런데, 문제는 아래위로 뜯겨야 하는 토목. 건설현장 함바집 운영자들은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개밥 같은 험한 음식'을 제공하고 수지를 맞춰야 함바집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함바게이트 부로커의 먹이가 된 것이다.

이 번 에 구속된 유상봉(65)씨와 전 경찰청장 강희락씨는 어쩌면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였다고 봐야 할 것이며,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강희락이 경찰청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휘하 간부들까지 비리하수인으로 부려먹었다는 사실이다.

보도에 의하면 함바게이트와 관련, 경찰내부에서 총경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양심고백차원에서 '자진신고'를 받은 결과 10일 현재 120명 중 41명이 1차 밝혀졌다. 한 마디로 경찰이 쑥대밭이 되는 게 아닐지 우려치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이처럼 개만도 못한 인간들이 저지른 개 같은 짓을 두고 개보다도 더 나쁜 놈들이라고 아니 할 수 없는 오늘의 현실을 개판이라고 밖에 달리 표현 할 수 없음에 인간에게 무한히 충실한 개님(犬公)들께 미안하고 송구스럽다고 아니 할 수 없다.

강희락 위에 또 어떤 [?]이 있는지는 몰라도, 이 따위 개판세상을 뜯어 고치는 게 위정자가 할 일이요, 공사판 일용직인부도 대한민국국민입에 '국민권익위원회'라든가 '국가인권위원회', 월 급여 1억 원 '감사원장'께서 하실 일이 아닐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급한 일은 특정인을 겨냥하고 특정계파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오해(?)를 받아가면서 개헌에 매달리기보다 천안함과 연평도포격으로 드러난 국가안보상 허점보완과 함바게이트 같은 총체적 부정비리 근절척결이 시급한 것이다.

근하신년

성서하나님의교회

(the Church of God of Prophecy Korea) (이천성서수련원)

www.scogop.net

생명의 양식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고후 3장 17절)

예배안내	요일	시간	장소
주일 예배	주일	오전 11:00	본당 (2층)
찬양 예배	주일	오후 3:00	이천 수련원
유치부 예배	주일	오후 1:30	기도실
초등부 예배	주일	오후 1:30	본당 (2층)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9:00	지하 성전
청년대학부 예배	토요일	오후 6:30	지하 성전
스페인어 예배	주일	오후 1:30	지하 성전
새벽 기도회	매일(월~금)	오전 5:00	지하 성전
수요 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	지하 성전
금요 기도회	금요일	오후 9:00	지하 성전
2시 기도회	매일(월~토)	오후 2:00	기도실

원로목사 : 이철재 감독(Bishop)
담임목사 : 이정민 목사(Mi nis ter)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1:8절)

감독 이철재 목사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127-3호 (02)465-4090
성서수련원(이천 031)634-3590
부설 : 새생명 어린이집(02)464-3107

근하신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일교회



담임 이 이 중 목사
(본지,상임이사)

원로 : 김영환 장로
장로 : 우만호 장로, 신호균 장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65-2
전화 031)714-1426, 7236

근하신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다니엘교회

표어 : 말씀이 응하는 교회(눅4:21)



하나님이.....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단1:17)

담임 고성규 목사
(본지 운영이사)

교회약도



경기도 시흥시 은행동 250-1
http://daniel.onmam.com
교회 031)313-3454, 312-2613

근하신년

대한예수교장로회

핵심장대현교회

Haeksimjangdaehyun Presbyterian Church





담임 이 선 목사

예배시간안내

기관	시간	장소	기관	시간	장소
유 치 부	주일오전 9:00	4층 나사렛성전	장년부	주일오전예배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2:00	2층 대예배실
유년.초등부	주일오전 9:00				
중고등부	주일오전 11:00 주 일 오후3:30	2층 대예배실	수요기도회	수요일 저녁 7:00	
청년부	토 요 일 오후5:00	4층 나사렛성전	금요기도회	금요일 저녁 8:00	4층 나사렛성전
셀 예배	셀장대학 금요일 오전10:00, 오후8:00 각 셀 예배	2층 대예배실 셀 가정별	새벽기도회	매 일 새벽 5:00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850-3호
담임 이 선 목사 전화 02)430-9107 . 02)3402-2714

"성경으로 본 건강학" 자신에 맞게 꾸준히 하라!(26)

아침 식사는 반드시 하라!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욥 23:12)

얼마 전 한 친구가 찾아왔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최근에 출간한 필자의 책을 읽고 건강을 위해 한가지 결심을 했노라고 했다. 그 결심인즉 "반드시 아침식사를 하고 출근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물론 결심 하나로 일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나 "일단 시도해 본다"는 태도변화는 삶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샐러리맨이 반드시 아침식사를 하겠다는 결심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왜냐하면 아침식사를 하려면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야하기 때문이다. 일찍 일어나야 식욕이 생긴다. 거기에다 단 10분이라도 산책이나 운동을 곁들이면 더욱 식욕이 왕성해진다. 위장도 잠을 깨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어나자마자 생수나 과일쥬스를 마시고 한참 후 식사를 하면 위장운동이 활발해져 소화에 도움이 된다.

일찍 일어나려면 조금이라도 일찍 자야한다. 일찍 자려면 귀가시간이 빨라야 하고 그만큼 아내가 정성껏 차린 저녁상을 대할 기회가 많아지게 된다. 포근한 가정에서 사랑이 담긴 음식을 먹으니 건강에도 좋고 돈도 절약된다.

부부애도 깊어지고 자녀와의 대화시간도 풍성해져 가정의 기능이 정상화된다. 존경받는 남편, 인정받는 아빠로서 이른바 가장의 권위를 회복하게 되고 매사에 자신감을 갖게 된다.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으면 저녁모임 대신 점심약속이나 조찬모임으로 대신할 수 있다.

출근시간에 쫓겨 아침을 거르는 직장인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다. 대개의 경우 음주를 포함한 저녁과식은 늦은 귀가, 늦잠, 아침결식으로 연결된다. 정신적으로나 생리적으로 식욕이 생길리 만무하다. 오히려 꼭 아침을 먹어야 한다는 부담감과 쫓기는듯한 아침식사가 소화불량을 일으키고, 무겁고 불편한 오전근무로 연결되어 역효과를 초래한다.

아침결식은 땍빠진 근무시간으로 직결된다. 활동할 수 있는 열량이 없는 상태에서 일을 하자니 도무지 의욕이 없다. 뇌는 깨어 활동하고 있으나 몸은 아직 자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런 상태에서 일을 하자니 자극이 필요하다. 커피를 마셔야하고 담배를 피워야 일이 된다.

점심도 맵고 얼큰한 자극성 음식을 선호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만성영양부족"상태에 빠지게 된다. 오전에 정신없이 지내다 오후에는 시간에 쫓겨 일을 몰아 붙이니 스트레스가 쌓이게 된다. 이 허기와 스트레스를 풀자니 그냥 집에 들어갈 수 없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반드시 아침식사를 하고 출근하라. 아침시간에 정 바쁘면 먹기에 편하고 영양가가 높은 죽을 대용하라. 그것도 힘들면 과일 쥬스 한잔도 좋다. 활기찬 하루 일과를 위해서 아침식사를 잊지 말라. 성공의 비결은 그리 복잡하지 않다. 아침식사가 당신의 건강과 성공을 좌우한다.

신앙생활의 성패도 아침시간이 좌우한다. 식사를 매일 하는 것처럼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공급받는 것은 바른 신앙성장의 열쇠다. 며칠씩 결식하고 이를 보강하기 위해 한꺼번에 과식하는 방식의 신앙생활은 무기력 할 수 밖에 없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좋다. 조용한 아침시간에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가져라.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구절을 단 한절이라도 매일 묵상하라. 생생한 꿈을 가지고 기도하라.

효과적인 시간활용을 위해 성경구절의 선정과 기도제목을 자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이른 아침 정신의 공백상태를 TV나 신문보다 먼저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라. 하나님과의 생생한 만남이 하루를 풍요롭고 싱싱하게 해준다는 수많은 증인들의 말에 겸손히 귀를 기울여라.

황성주 박사 저서 중에서

용감한 목사아들 성폭행 여성구출, 범인 검거

안전한 사회구현에 기여한 공로 인정, 감사장 받아



성폭행 범인을 잡은 공로로 표창을 받은 신학생 정명철

불신과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에도 남을 위해 불의와 싸우는 용감한 청년이 있기에 이 사회는 아직 따뜻하다. 안양대학교 신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정명철 청년(22세)은 지난 30일 오후5시경 안양시 어느 상가 건문을 내려오는 길에 '살려 주세요'라는 다급한 비명소리에 청년은 반사적으로 소리가 들리는 여자 화장실로 달려가 여성을 폭행하고 있는 남성을 제압하자 그는 도망쳤다. 하지만 용감한 청년은 그를 뒤쫓아 가 결투 끝에 범인을 붙잡고 경찰에 신고했다. 성폭행의 다급한 위기에서 한 여성을 구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목사 아들은 지난 4일 안양 만안경찰서 구본걸 서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구 서장은"우리 사회가 유지될 수 있는 것도 정 청년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면서"무법지대의 현장에서 도움을 준 학생의 용기를 높이 평가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계획된 범행이 아닌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신고하지 않으면 범인을 검거하기 힘들다"며"비명소리만 듣고 달려가 범인을 검거하는데 도움을 준 것은 외국에서도 흔하지 않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구 서장은 신학생으로서 장래에 목회사역을 할 때 좋은 경험과 교훈이 된 사례가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정 청년의 아버지인 정진수 목사(든든한교회)는"처음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고 폭력사건으로 와전돼 걱정을 많이 했다"면서"그러나 바른 분별력으로 정의를 위해 싸워준 것이 뿌듯하다"고 전했다. 정명철은 또한"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를 사용하신다고 하는데 그동안 열심히 운동한 것이 적재적소(適材適所)에 사용되어 감사하다"고 피력했다.

정진수 목사는"신앙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최선을 다해준 아들이 자랑스럽다"면서"앞으로 군목으로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사역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인간존중 생명공학기업‥(주)펄스젬 2011 비전선포

"보람·수익·누림"…'행복한 삶' 선언

건강을 통해 행복을 전하는 믿음의 기업



이은재
펄스젬 대표

저주파로 신경을 자극,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지방을 분해시켜 탄력성 있는 피부를 유지하게 해주는'드림7'을 비롯,'데일리 바이탈웨시''통전젤'등을 개발 제조 판매하는 (주)펄스젬생명공학(CEO 이은재)은 최근 서울 강남의 엘루이호텔에서 '2011 비전선포식'을 갖고 신뢰와 믿음의 경영으로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발전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오전 10시 30분 내외빈 소개로부터 시작한 이날 비전선포식은 먼저 전국 각 지점의 지점장에 대한 임명장 수여와 승격식을 가진 후 대표이사 인사, 주명준 고문의 축사, 카오리온 대표와 젬벽 조홍식 박사의 격려사, 온누리사랑챔버오케스트라의 축하공연, 김창호 교수(남서울대)의'경영환경과 마케팅 전략'이란 제목의 특강, 각 소비자들과 지점장들의 체험 및 사업사례 발표, 이은재 대표의 2011 비전선포 등 순서로 진행됐다.

이은재 대표는 각 지부장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한 후 인사말을 통해"신뢰와 믿음의 경영을 바탕으로 회사를 설립한지 3개월 만에 80여개의 지점을 개설하고 곧 100여개 지점을 바라보게 됐다"면서"본사를 믿고 지점 개설에 참여한 지점장들에게 무한한 감사와 신뢰를 보낸다"고 말했다. 아울러 "펄스젬은 꿈이 있는 기업으로서 급변하는 세계 및 국내 경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을 혁신하고, 진보적인 사고로써 세계 일류의 상품만을 출시, 전 세계에 자사 브랜드 제품이 판매되는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2011년의 비전선포를 통해 "2011년의 비전은 행복"이라면서"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보람'과, 일에서 발생되는'수익'그리고 이 수익을 통해 얻어지는'누림'이 바로 행복"이라고 말했다. 펄스젬을 통해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있는지, 일에 대한 수익은 이뤄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수익을 통해 삶을 질적 향상을 누리고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을 통해 고객이 진정한 의미의'쉼'을 얻고, 지점장들이'쉼'을 얻으며, 더불어 회사도'쉼'을 얻는 그런 기업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2011년의 펄스젬이 나아갈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김창호 교수는 경영마케팅에 대한 특강에서"기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급변하는 시장 경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줄 알아야 한다"면서"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한 발 앞서 생각하고 만족시킬 수 있는 제품을 생산판매하며, 관련 서비스를 적재적소에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이 미래사회가 원하고 기대하는 기업"이라고 말했다.

내수막종암을 앓다가 펄스젬을 체험한 후 건강을 회복한 김태희씨(송실대지점), 불면증 및 허리통증, 변비, 위경련 등'움직이는 종합병원'으로 불리다 드림7을 만난 후부터 새 삶을 살고 있다는 김지현씨(대방지점), 신장, 위장, 대장이 안 좋아 결국 직장까지 그만뒀다는 잠실지점 고객 조영수씨 등은 이날 체험사례 발표를 통해 펄스젬의 우수성을 강조했다.

또한 인천연수지점 박혜영 지점장과 인천부개지점 이정숙 지점장, 일산주엽지점 이승환 본부장 등은"자신들이 먼저 펄스젬을 체험한 후 제품의 우수성을 확신했기에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면서"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은 더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자신들의 사업 성공 사례를 설명했다.

(주)펄스젬은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변화와 창조의 마인드로 과거와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Client e-Business 성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각 지점의 활성화를 위해 10대의 기기를 주문할 경우 6대를 무상으로 더 지원하며, 지점이 성장 발전할 때까지 본사 차원의 교육 및 경영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주)펄스젬은 지난 1996년 1월 설립됐으며,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청, 경상남도 등으로부터 유망중소기업, 우수벤처기업, 수출기업화사업기업, 기술경쟁력우수기업 등으로 선정된바 있다. 2007년 4월 (주)승리금속과 (주)트인벽을 합병해 (주)젬벽으로 재출발했으며, 작년 5월 판매법인인 (주)펄스젬생명공학을 새롭게 출범시켰다.

(주)펄스젬 생명공학 www.pulsegem.com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481-10 벽산경인디지털밸리 2차 1417호
Tel.02-857-1820 Fax.02-857-1819



화랑장병들 사랑으로 감싸 안으며 선교를...

장병들을 위한 더 많은 사랑을...



김용호 목사 부부

지난 연말 군부대 내에 장병들에게 용기와 사랑으로 생명을 불어 넣는 자랑스러운 교회가 있다. 그곳이 화랑군인교회이다. 김용호 담임 목사와 사모는 16년째 군부대에서 장병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전하고 있다.

김 목사는 매년 12월이 되면 추운 날씨에 군복무로 고생하는 장병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즐거운 병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매년 불우장병들을 돕기 위해 600포기의 김장을 담근다. 지난해도 어김없이 화랑교회에는 600포기의 김장을 담았다. 배추 한 포기당 삼사천 원 할 때 그 많은 양의 배추를 준비하여 김장을 한다는 것은 정말 힘들 법도 한데, 힘든 내색 한번 하지 않고 즐겁게 이 일을 해오고 있다.

군 선교에 관심이 있는 지인들의 정성어린 손길들로 시작된 김장은 올해로 16년째 접어들고 있다. 김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김 목사는 배추를 다듬어 쪼개고 절이는 과정에서 몇 년 전부터 양쪽 손목 인대가 늘어나 아픈 손목에 파스를 붙이고 아대를 한 가운데 병원출입을 해가며 약을 지어 복용하면서 까지 장병들을 위해 헌신봉사를 힘스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손목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헌신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한국교회의 미래인 젊은 장병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용기가 되어 군 생활에서 활력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김치의 활용범위 또한 굉장히 넓고 의미가 있다. 해마다 각 부대장들이 불우장병들을 선별해주면 이렇게 담근 김치를 불우장병에게 일인당 20포기씩 지원하며, 김치와 더불어 20kg의 쌀 그리고 라면 한 박스씩을 꾸준하게 지원하고 있다.

한편, 가장 추운 12월에서 2월 말에는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의 혹한의 야간경계근무로 인해 몸이 얼어서 복귀하는 장병들에게 김치와 컵라면으로 몸을 녹일 수 있도록 매번 지원하고 있으며, 주일 예배에 참석한 병사들에게 정성을 담은 사식으로 중식을 제공할 때에도 이 김치는 사용된다. 이러한 헌신과 사랑으로 장병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주님을 영접하는 계기가 된다면 그것으로 만족한다며 김 목사의 입가에는 미소가 지어진다.

화랑교회는 군 선교에 관심이 있는 몇 교회들과 몇 분의 목사, 게다가 목사님들로 조직된 하나선교회의 도움을 받아 근근이 군 선교를 하고 있다. 일반교회에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화랑교회가 해내는 것을 본 지인들은 화랑교회의 재정이 넉넉하리라 생각들 한다. 하지만 화랑교회는 한 달 재정이 20~30여만 원이 고작인 자립이 되지 않은 교회이며, 부대의 간부들은 민간교회로 다 나가고 병사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순수한 병사들의 교회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군 선교에 박차를 가하며 군 선교의 영역을 확장해 나아가는 김 목사의 선교 열정은 대단하다.

2년이 지나면 모두 이 부대를 떠나고 새로운 병사들이 들어오는 이곳에서 하루 이틀도 아닌 16년 동안 똑같은 사역을 하는 김 목사는 "나의 작은 헌신이 장병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계기가 된다면 나의 역할은 다 한 것이 아니겠느냐"며 즐거운 마음으로 이 사역은 멈추지 않는다. 김 목사의 사역이 한국교회의 밝은 미래를 전망하게 하는 것은 그 사역의 대상이 한국교회의 미래가 될 청년들이기 때문이다. 김 목사의 말처럼 한국교회의 미래들을 키워 내는 일에 더 충성하여 많은 열매를 거두기를 소망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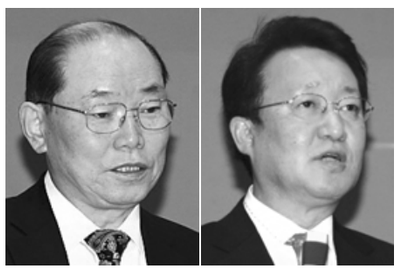


김장하는 성도들과 장병들



장병들에게 위문품을 전달

박성욱 목사 총회부흥사회 제19대 대표회장 취임



총회장 조경삼 목사

부흥사회 대표회장 박성욱 목사

예장개혁총회 신년하례에서 총회부흥사회 제19대 대표회장에 박성욱 목사를 추대하고 취임식과 축하연이 베풀어졌다.

지난 1월 7일 오전 11시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자리한 성도중앙교회(박성욱 목사)에서 제19대 대표회장 박성욱 목사를 추대하고 취임식을 가졌다. 신년하례예배가 드려진 총회부흥사회는 교단 발전에 뜻을 같이하고 교회 부흥을 위해 적극 나서기로 새로운 각오를 다짐했다.

총회장 조경삼 목사는 요즘 부흥사들이 고급자동차와 고급호텔에서 잠을 자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며, 업청난 대접을 받고 있다. 이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세례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회개하라고 외쳤다. 그의 부모는 사가랴로 귀족출신이다. 그러나 그는 절제된 삶을 살며 회개를 외친 것이다. 부흥사들은 이런 세례요한을 본받아야 한다. 아무리 인기가 있다고 해도 주님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인기는 못 얻어도 회개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광양의 소리를 외치는 것이 진정한 개혁교단의 부흥사들이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주님께 인정받는 부흥사들이 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다.

이어 대표회장 박성욱 목사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대표회장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래서 어깨가 더 무겁다며, 교회 부흥과 교단 발전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힘쓰고 모범적인 총회부흥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섬기겠다고 밝혔다.

이날 개신대 나용화 총장, 증경총회장 최승영, 김송수 목사가 축하와 격려하고, 총회총무 정해송 목사의 보고가 있은 후, 증경총회장 신용현 목사, 서금석 목사, 증경회장 박영길 목사가 격려했다.

이날 예배는 수석상임회장 이화웅 목사 사회와 조세영 목사(상임회장)가 기도, 정바울 목사(서기)가 성경봉독, 총회장 조경삼 목사는 "광야의 소리"란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김성수 목사 마경운 목사, 조영호 목사, 최진기 목사 등이 특별기도에 나섰으며, 조경대 목사 축도로 마쳤다.

총회부흥사회 제19대 대표회장 박성욱 목사는 개혁총회 부총회장이며 성도중앙교회 위임목사이다.



대표회장 박성욱 목사 부부

하루 녹차 한잔, 잇몸질환 예방에 도움 돼

하루 한잔의 녹차를 마시는 것이 잇몸질환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일본 규슈대학교 연구팀은 일본 중년남성 940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녹차를 많은 마시는 사람일수록 잇몸출혈 등 치주질환이 발병할 가능성이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연구팀은 녹차를 마시는 것이 치과 치료를 대신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저스타임즈」는 광고와 선교비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광고 및 문서선교비로 유지되는 본보와 기독교인터넷방송(WWW.JTNTV.KT)

「지저스타임즈(신문) 독자 제위께」

본보를 아껴주시고 애독해 주신 독자 여러분의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위에 새해를 맞이하면서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기도드립니다.

본보는 구독료 없이 무가로 보내드리고 있으며, 독자 여러분의 기도와 선교비 후원으로 문서선교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 16개 지사를 운영하고 지사장들과 기자들, 직원들은 독자 여러분을 존경하며 성심을 다할 것입니다.

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발행하는 본지를 위하여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본보는 독자님들의 문서선교비 후원과 광고 후원이 큰 힘이 됩니다. 전국으로 확대해 가는 본보는 농어촌에도 발송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 건강한 한국교회를 만드는 언론으로 우뚝 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후 2011년 1월 19일

지저스타임즈

발행인 정기남 목사 배상

■ 독자 여러분의 후원으로 성장하는 교계언론 지저스타임즈입니다.

· 은행 계좌번호

하 나 은 행 670-110405-00108

농 협 455030-56-005509 정기남

지저스타임즈

서울시 송파구 마천2동 140-31

TEL(02)741-0031(팩스겸용) 070-8230-0032



전국 16개 지사와 해외 12나라 지사가 매일 매일 기도하며 만드는 신문과 기독인터넷 방송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선교를 부탁드립니다.

광고로 후원을, 문서선교지로 후원을....

謹賀新年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총회 전국노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강원노회



노회장 박영남 목사
춘천중앙교회

노회장 박영남 목사 외 노회원 일동

(200-112)
강원도 춘천시 소양로 2가 1번지
h.p 011-364-4280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기노회



노회장 이경찬 목사
서광교회

노회장 이경찬 목사 외 노회원 일동

(380-950)
충북 충주시 교현1동 484-15
h.p 010-7660-9091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성노회



노회장 김태곤 목사
구로 초원교회

노회장 김태곤 목사 외 노회원 일동

(152-871)
서울시 구로구 구로2동730-100
h.p 010-9492-1770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증노회



노회장 이기식 목사
한샘교회

노회장 이기식 목사 외 노회원 일동

(153-859)
서울시 금천구 시흥5동 920-460
h.p 010-3240-4713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인노회



노회장 김승년 목사
예수소망교회

노회장 김승년 목사 외 노회원 일동

(410-86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1동 1239 원스턴 301호
h.p 011-2972-7859

대한예수교 장로회 강동노회



노회장 정규남 목사
주 목음교회

노회장 정규남 목사 외 노회원 일동

(463-81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65-2 수내빌딩 5층
h.p 010-3136-0697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천노회



노회장 김종국 목사
은성교회

노회장 김종국 목사 외 노회원 일동

(443-813)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영통동 1034-11
h.p 011-9991-6288

대한예수교 장로회 남부노회



노회장 김성남 목사
목포이웃교회

노회장 김성남 목사 외 노회원 일동

(530-350)
전남 목포시 산정3동 149-1
h.p 019-633-1710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향노회



노회장 장광수 목사
본석교회

노회장 장광수 목사 외 노회원 일동

(413-758)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유승앙브와즈 212동 507호
h.p 010-4227-1170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한노회



노회장 장한국 목사
주사랑교회

노회장 장한국 목사 외 노회원 일동

(473-080)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대림프라자(고흥)7층
h.p 010-4436-7060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서울노회



노회장 심순범 목사
대전예제교회

노회장 심순범 목사 외 노회원 일동

(305-808)
대전시 유성구 장대동 280-11
h.p 010-5674-7751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노회



노회장 허성인 목사
신성교회

노회장 허성인 목사 외 노회원 일동

(122-878)
서울시 은평구 수색동 376-5
h.p 010-4270-3462

대한예수교 장로회 수도노회



노회장 김춘택 목사
은천교회

노회장 김춘택 목사 외 노회원 일동

(422-800)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69-12 h.p 010-4166-2307

대한예수교 장로회 수원노회



노회장 김영배 목사
벧엘교회

노회장 김영배 목사 외 노회원 일동

(430-856)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587-35 안양빌라7동201호
h.p 010-4282-0460

대한예수교 장로회 중부노회



노회장 박용학 목사
장갑교회

노회장 박용학 목사 외 노회원 일동

(376-873)
충북 보은군 산외면 장갑2리
h.p 011-9805-4461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서노회



노회장 하종우 목사
비올선교교회

노회장 하종우 목사 외 노회원 일동

(450-762)
경기도 평택시 합정동 742-17
h.p 010-2740-1571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성노회



노회장 조철준 목사
큰빛교회

노회장 조철준 목사 외 노회원 일동

(573-873)
전북 군산시 문화동 549-21
h.p 010-3944-9491

대한예수교 장로회 중앙노회



노회장 정기남 목사
본지 대표이사
연남교회 담임

화합과 단결로 힘 있는 중앙노회로 전진하자

(138-819)
서울시 송파구 마천2동 140-31
tel 070-8230-0032,34,
H.P 011-5468-6574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암교회



담임 신언창 목사
웨신총회 총무

담임 신언창 목사 외 교우 일동

(585-851)
전남 고창군 성송면 암치리 16-2
Tel063)564-4001,pm010-8602-3009

대한예수교 장로회 은광교회



담임 이원석 목사

담임 이원석 목사
본지 상임고문

(130-874)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 2동 52번지 현대상가 3층 301호
☎02)245-8767,8766
h.p 017-717-4400

선일장로교회 전북지사



담임 박주성 목사

담임 박주성 목사
본지 전북전주 지사장

(561-827)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1가 898-11
☎063)241-9182,242-0134
h.p 011-659-1016

생명길교회 경북 대구지사



담임 이상락 목사
본지 경북 대구지사장

담임 이상락 목사
본지 경북 대구지사장

(700-210) 대구시 중구 하서동 28-1 (아미고호텔20층)
☎053)628-3689
h.p 010-8616-0889

한사랑교회 중부지사



원로 박양우 목사
본지 중부지사장

원로 박양우 목사
본지 중부지사장

(302-161)
대전시 서구 도마동 129-16
☎042)321-7340
h.p 010-2872-4357

임마누엘교회 중부지사



담임 양승섭 목사
중부지사 상임총무

담임 양승섭 목사
중부지사 상임총무

(302-819)
대전시 서구 도마동 51-28
☎042)532-3622
019-436-3622

퓨리탄 장로교회



서영용 목사

서영용 담임목사
퓨리탄신학대 학장,
본지 상임이사

(우)300-160
대전광역시 동구 중동 3-29번지

謹賀新年



謹賀新年



참 좋은 교회를 소개합니다.



아시아 · 아프리카 지역 기독대학들 한국서 선교대회 연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에 한국 기독인들이 선교 목적으로 설립한 기독대학들의 협의체인 'PAUA(파우아)' 4차 선교대회가 한국에서 개최된다. 교육선교에 대한 한국교회의 인식을 점검하고 관련 자원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유의미한 자리가 될 전망이다.

한국에서 열리긴 처음…교육선교 자원 활성화 논의

범아시아·아프리카 대학협의회(Pan Asia & Africa Universities Association)는 오는 20~22일 서울 서초동 사랑의교회에서 4차 선교대회를 개최한다.

파우아는 한국인들에 의해 선교 목적으로 세워진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 내 기독교 대학들의 협의체로, 현재 몽골국제대학·캄보디아 라이프대학·인도네시아 UKCW 대학, 울란바토르대학 등 8개 대학이 회원으로 소속돼 있으며 6개 대학 설립이 추진 중에 있다.

이번 선교대회는 2008년 캄보디아에서의 모임을 계기로 시작돼 올해 처음으로 국내에서 열리게 됐다.

6일 오전 서울 안국동 모처에서 마련된 기자간담회에서 강성택 사무총장(연변과기대)은 "파우아에 소속돼 있는 대학들의 존재와 활동을 한국교회에 알리고, 교수진을 비롯한 선교 자원의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선교에 대한 한국교회 인식 부족 아쉬워"

파우아는 교육선교에 대한 한국교회의 관심과 지원이 턱없이 부족함을 호소하며, 이번 대회가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원성욱 사무국장(라오스S대)은 "하나의 대학이 설립되면 전공분야별 교수진뿐 아니라 영어와 한국어 교원, 행정 요원, IT 전문가, 의무실에서 근무할 의사와 간호사, 영양사 등 다양한 분야의 선교 자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그러나 아직은 해외선교가 교회 개척에 치중해 있어 자원과 재정 확보 등 현지 사역에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이에 이번 대회에서는 파우아 소속 대학들의 총장과 이사장, 교수진들이 대거 참석해 선교대회의 취지를 알리고 한국교회의 협력을 적극 호소하는 한편 각 나라별로 현지에서 사역 중인 선교사들의 사례도 소개된다.



파우아 1차 선교대회(파우아 제공)

또한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오정현 목사(사랑의교회), 김진경 총장(연변과기대), 이용규 선교사('내려놓음' 저자), 박용규 교수(총신대) 등이 강사로 나서 대학과 선교연합을 주제로 포럼과 집회를 인도한다.

강성택 사무총장은 "대학교수나 교직원, 단기강사, 국제학교 교사 등 교육선교에 비전 있는 이들에게는 해외 대학의 다양한 분야에서 일할 기회가 제공되는 것"이라며 많은 이들의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2011년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

신년축복 열두광주리 특새, 15일까지 진행 이영훈 목사 갈라디아서 강해, 성도들 반응 폭발적

2011년 신년축복 열두광주리 특별새벽기도회가 3일부터 대성전에서 드려지고 있다. 2주 동안 드려지는 이번 특별새벽기도회는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열두광주리의 풍성한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

대성전은 새벽 4시부터 빈자리를 찾기 힘들 만큼 많은 성도들이 모여들어 말씀과 기도로 한 해를 시작하는 성도들의 열정을 확인하게 했다. 대성전에 앉아 우리교회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악한 세력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올 한해 교회가 더 크게 부흥하도록 뜨겁게 기도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2011년 기도와 말씀으로 대성회

1시간 넘도록 성전에서 찬양과 기도로 무장한 성도들은 이영훈 목사의 갈라디아서 강해를 통해 성령 충만, 은혜로운 말씀을 통한 거룩한 비전을 세웠다.

'율법과 복음'을 주제로 갈라디아서 강해를 진행한 이영훈 목사는 '진리의 복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복음의 진리' '구원의 진리' '아브라함의 복' '예수 안에서 하나'를 주제로 설교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의롭게 됨을 강조했다. 또한 "하나님의 택함받은 우리는 법사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전 성도가 화목하고 전 교역자가 한 마음이 돼 주님의 일에 힘쓰길 바란다"고 하면서 주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것을 권면했다.

영산성어즈의 은혜로운 찬양, 설교 후에 이어지는 통성기도와 교역자들의 안수기도는 열두광주리특별새벽기도회를 더욱 성령충만케 했다.

아들 내외, 어린 손주까지 3대가 특별새벽기도회에 참석하고 있는 박타문 권사(은평대교구)는 "온 가족이 함께 새벽기도회에 나와 기도하는 이 시간이 정말 감사하다. 목사님의 갈라디아서 말씀에 은혜받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 부흥을 위해, 조용기 목사님과 이영훈 담임목사님의 사역을 위해 기도할 때면 은혜가 넘쳐난다"고 고백했다.

30년 째 평일 철야예배와 새벽예배를 드리고 있는 김경순 권사(서대문대교구)는 "열두광주리 새벽예배 하면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된 것 같아서 기쁘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의 모습에 대해 세계적으로 본을 보여주는 것 같다"며 "세계적인 교회에서 세계적인 축복 누리게돼 감사하다. 이영훈 목사님의 설교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도들은 기도회 첫 날부터 1만 6천 5백여 명이라는 기록적인 인원이 참석하였고, 연인원 20만 명 참석이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제자교회와 지방교회, 개척교회, 해외선교지에서도 위성 수신을 받아 열두광주리 특별새벽기도회에 등 참 했 고 인 터 넷 (www.fgtv.com)과 굿티비에서도 방송돼 기도회에 참석한 성도들 수는 더욱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은혜와 감동, 기적이 넘치는 이번 열두광주리특별새벽기도회는 15일까지 진행됐다.

흰돌산수양관 윤석전 목사 2011 동계성회 "변화의 바람 일어나"

목회자와 목회자 자녀를 위한 성회 마련

수원흰돌산수양관 원장 윤석전 목사는 '10년의 믿음을 앞당긴다'라는 표어로 24년을 한결 같이 진행해온 연세중앙교회선교부 주최 흰돌산수양관 동계성회가 올 겨울에도 어김없이 개최된다. 20여 년간 꾸준히 진행해 온 이 성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영성, 인성, 도덕성, 가치회복 프로그램으로서 교회 부흥의 차원을 넘어 사회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부흥운동의 산실이다.



수원흰돌산수양관 원장 윤석전 목사

수려한 조경과 쾌적한 환경 속에 6,000명 이상을 동시에 수용하는 대규모 시설을 완비하였으며, 수양관 수준으로는 국내외 최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지하실 개척교회를 시작으로 20여 년 만에 연세중앙교회를 세계적 규모의 교회로 부흥시킨 윤석전 목사는 이제 교파를 초월하여 세계적인 지도자로 우뚝 섰다.

예수생애부흥사회와 함께하는 신년축복대성회 열려

◇ 대망의 2011년 새해를 성령과 함께 시작= 1월3일~1월6일까지 흰돌산수양관에서 시작되어 새해 첫 시간을 풍성한 말씀으로 무장되었다. 2011년 동계성회 첫 출발인 이 성회는 지난 1월 10일~13일까지 열였으며, 신앙 결단을 실천하는 청년들을 위한 집회도 1월17부터 20일까지 열린다. 갈수록 좁아지는 진학과 취업의 문 앞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은 청년들이 좌절하고 있다. 그 공허함을 달래려고 소비적 대중문화, 사이버 문화에 중독되고, 향락과 음란 퇴폐 문화 유혹에 빠지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청년들을 겨냥한 청년 대상 세미나는 가치 있는 뚜렷한 삶의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고, 올바른 인격을 가지고 인생의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전진하게 한다.

제1차 목회자와 자녀가 함께하는 세미나는

목회자 가정의 사명과 축복을 일깨워주는 성회가 올해 처음 시행하는 '목회자와 자녀가 함께하는 세미나'이다. 이는 1월24일부터 27일까지 3박4일 동안 개최된다. 목회자 가정이 평안해야 목회자는 목회에 전념할 수 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가 자녀와의 갈등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 또 목회자 자녀는 부모의 지나친 기대에 대한 부담감과 목회자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상처와 외로움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목회자 가정의 영성 회복은 매우 절실하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대성회(연세중앙교회)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리 회복= 1월31일부터 4일까지 4박5일 동안 개최되며 민족 명절이라는 분위기에 휩싸여 수천만 명이 우상숭배 하여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내는 시기에 초교파적으로 성도 수천 명이 연세중앙교회에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 우상숭배를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 있는 치유와 건강, 이적과 능력, 권세 등 엄청난 영육 간의 부유를 실질적으로 누리는 축복 대성회다. 올해도 연휴 기간에 많은 성도가 가족 단위로 참석해 우상숭배로부터 승리하고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여 믿음을 앞당기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될 것이다.

게다가 제29차 초교파 직분자(諸職) 세미나가 2월14일부터 17일까지이며, 제43차 초교파 목회자부부영적세미나는 교회를 부흥성장하게 하는 능력의 목회 회복으로 2월21일~24일까지 열린다. 이번 세미나는 강사 윤석전 목사의 성령 충만한 실제적 목회 체험을 바탕으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목회자들의 영적 실상을 허심탄회하게 지적하여 인본주의 목회에서 신본주의 목회로 이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영적 역량을 잃어버리고 고민하는 수많은 목회자에게 목회에 대한 능력과 사명감을 되찾아주는 유익한 성회이다.

특별히 흰돌산수양관 동계성회는 매년 개인별 참석 뿐 아니라 단체 참여가 늘어나고 있으며, 신앙생활에 새 전환점을 갖고자 하는 이들에게 필수적인 영성 프로그램으로 남녀노소 목회자에 이르기까지 환영받고 있는 동계성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문의 : 연세중앙교회 선교부
022680-0114 www.yonsei.or.kr

강도사 고시 시행 공고

2011년도 강도사 고시를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 아 래 -

1. 고시일시 : 주후 2011년 2월 24일(목) 오전 10시
2. 고시장소 : 상암제일교회(이동우 목사 시무)
   주소: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15-13 교회:02-309-8291,HP:010-8291-0032
3. 고시과목
   ① 조직신학 : ②교회사 : ③교회헌법 :
   ④논문 : 본인의 목회관 (A4 용지 20매 이상)
   ⑤설교 : 설교문 제출 (약 10분정도의 분량) ⑥면접 :
   • 웨스트민스터 대학원 대학교 대학원 또는 연구원 졸업자나 본 총회가 인정하는 대학원 또는 연구원 졸업자는 필기고사(조직신학, 교회사, 교회 헌법) 면제함
4. 고시료 : 300,000원
5. 접수기간 : 주후2011년 2월 14일 월요일 오후5시까지
   • 서류 제출시 논문, 설교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6. 제출처 : 총회본부(사무실)
   주소 / 150-851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5동 442-105(201호)
   ☎ 02-835-2606~7 FAX 02 - 835 - 2608
7. 응시자격 : 웨스트 민스터 신학 대학원 대학교 대학원, 연구원 졸업자 또는 본 총회가 인정하는 동등학력을 소지한 자.

• 상세한 내용은 총회 사무실과 총무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 - 835 - 2607 E-Mail ok@21.kr 총회홈페이지 http://ws21.kr
   총무 : 신언창 목사 010 - 8602 - 3009
• 강도사 고시 청원서는 총회 사무실 방문 또는 우편, 홈페이지를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후 2010년 12월 9 일

謹賀新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이사야40장31절)



사장 소진우 목사

2011년 새해를 맞아 만물을 치유하고 회복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한 해가 우리 앞에 다가왔지만 여전히 희망도 그리고 행복도 없이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희망과 행복을 물질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물질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고 달려가도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는 물질에 희망과 행복을 두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우리의 희망과 행복을 두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우리 모두에게 한없는 은총의 역사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저스타임즈
및 기독인터넷방송(jtntv)
사장 소진우 배상(예복교회 담임)



각 교단 및 교계 단체 대표들이 새해를 맞아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신년 메시지를 전해 왔다. 이들은 한국사회와 교회가 처한 갈등과 위기를 평화와 안정으로 회복하는 새해가 되기를 염원했다.

"새해엔 갈등과 분열의 골 메워지기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이광선 목사는 한국사회가 처한 위기를 발전의 기회로 보고, 새해에는 한국교회의 사명에 보다 충실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지난해 우리나라는 북한 도발로 인한 긴장 고조와 국론 분열, 위기에 빠진 세계경제와 지구촌 곳곳의 자연재해 등으로 거센 도전을 받았지만 느슨했던 안보의식을 일깨우고 당당한 G20 의장국으로서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며 "이는 위기를 발전의 기회로 승화시킨 우리 국민의 저력을 보여준 것이며, 한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며 "새해에는 한국교회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과 책임을 깨달아 감당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NCCK 김영주 총무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갈등과 분열의 골이 한국교회의 믿음과 기도로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했다. 2011년 새해를 새로운 희망으로 출발할 수 있는 것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기 때문"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 기도에 전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교회 최우선 과제는 '양심회복'"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양병희, 미래목회포럼 김인환 목사 주 안에서 새로운 한해가 되기를 기원했다.

"한국교회의 미래 준비하자"

예장합동과 통합,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등 각 교단 대표들도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왔다.

예장합동 김삼봉 총회장은 한국 사회와 교회 모두 평화와 안정을 누리게 되길 염원했다.

그는 "지도자들은 보다 겸손하게 희생하는 모범을 보이고, 대형교회들은 세상과 소통하며 이웃을 돌아보는데 앞장서며, 중소교회들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 보다 열정적으로 복음전파의 사명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철권통치로 국민을 억압하는 북한에도 복음의 빛이 비침으로 인권이 회복되고 경제가 윤택해지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예장통합 김정서 총회장은 다가오는 새해는 다음세대를 위한 특별한 헌신의 해로 삼고 한국교회의 미래를 준비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새해에는 다음세대를 위한 총회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전국교회와 더불어 다음세대를 세우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한다"며 "북한선교정책, 다문화선교, 저출산과 고령화 대비책 마련에도 힘써 나눔과 섬김의 본을 보이겠다"고 다짐했다.

기성 총회장 원필연 목사는 "혹한이 몰아치는 겨울이지만 우리의 심장은 복음의 열정으로 끓어올라야 한다. 복음만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 수 있다. 우리 민족의 희망은 전도에서 출발한다고 확신한다"면서 새해에는 모두가 전도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관심과 사랑을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불법체류자의 출국을 도와주자.
다문화 가정에 사랑과 관심을 갖자"



퓨리탄 장로교회 서영웅 목사
본지 상임이사

새해를 맞아 정부와 기업들은 새로운 목표와 계획으로 힘차게 출발 하였다. 국민 모두가 화합하여 지난해의 반목과 갈등을 털어버리고 이해와 사랑과 격려로 정부 정책에 기여 하도록 하자.

기업의 다양성과 세분화로 국내 인력이 부족한 싯점에서, 정부는 그동안 외국 근로자를 초청하여 농촌과 기업에 종사토록 하여, 현재 국내에 외국인 근로자는 약 5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그중에 중국인 근로자가 약 30만 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출국할 때 부푼 희망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왔으나 전문직종이 아닌 일반 노동을 하게 되므로, 저렴한 노임과 빈약한 처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부 기업주들은 노임을 제대로 주지 않아 월터를 옮기는 등 안타까움에 있는 실정이다.

정부에서는 외국인력 초청시 한국어 시험과 간단한 교육으로 입국 시키고 있으나, 불법 입국자들로 인해 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이나 근로자 모두에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고 있다. 앞으로 우리는 G20에서 G3국가를 지향하면서, 보다 많은 수출과 경제발전을 위해 많은 인력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정부와 기업은 외국 인력에 대하여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어 일하도록 배려해 준다면, 그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구슬땀을 보람으로 여기며 근로에 임할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과 관심과 격려를 받고 싶어 하는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부모형제 처자를 두고 타국에 가서 돈벌어 고향에 돌아와 보람 있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온 근로자들이 아닌가! 우리는 그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주어 용기와 힘을 갖도록 해야 하겠다. 체류기간 동안 신변안전은 물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어야 하며, 노동 임금을 차질 없이 지급함은 물론 정신적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조처가 요망된다.

불법체류 자들은 은닉, 도피 상태에서 사회적 문제점이 제기 될 수 있으며, 특히 일부 개인 업체들이 노동인력 및 결혼을 빙자로 외국 인력을 들여와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것은 철저히 규제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국내에 다문화 가정은 계속 증가 하고 있으며, 그들에 대한 정책배려가 요구됨은 물론, 사회적 관심도가 특별히 있어야 하겠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에게 이질감 없는 교육 정책을 펼쳐나가야 하며, 그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요망된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회전반에 다문화 가정이 많아지므로, 그들에 대한 관심과 협력으로 좋은 민족 구성원이 되도록 해야 한다.

체류기간을 넘긴 불법체류자에 대하여 정부차원의 배려가 시급한 실정이다. 불법체류자가 자진 출국신고를 할 때는 출국을 도와주고, 재입국을 원할시 허용해 준다면 그간의 일한 경력으로 보다 많은 생산성 효과를 가져 오리라 생각한다. 이러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외국인 근로자를 기용 한다면, 국내 인력난 해소는 물론 신규인력을 능가하는 좋은 인력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발전사회는 사람이 이룩하는 것이다. 앞으로 한국의 인구는 갈수록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지 않는가!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외국 인력은 앞으로 더 요구될 것이다. 외국 노동인력에 대한 권익을 보호하고 사랑과 관심으로 인력을 사용 한다면, 경제적 발전은 물론 그들을 통한 국제적 우호도 결들여져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가지고 돌아 갈 것이다.

밀알복지재단 기저귀 기부데이 이벤트 진행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대표 홍정길 www.miral.org)이 키즈폰(대표조현선 www.kidspon.com)과 손잡고 장애아동을 위한 기저귀 기부데이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키즈폰 홈페이지를 통해 기저귀를 구매하는 고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현재 이벤트 페이지에는 로렌조오일병으로 온 몸이 굳어 움직이지 못하는 준빈이의 사연이 소개되어 있으며 매달 기저귀 기부데이인 3~4일 키즈폰 홈페이지에서 판매되는 기저귀를 구입하면 구매금액의 10%가 준빈이의 기저귀비용으로 후원된다.

밀알복지재단은 "기적을 품은 아이들"사업을 추진하면서 방문물리치료가 필요한 중증장애아동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의료적 재활치료를 받는데 제한을 가진 장애아동에게 가정 또는 기관으로 방문하여 재활치료 서비스를 함으로 장애의 악화를 지연시키고 운동발달을 돕기 위해 하기 시작했다. 매주 1~2회 1:1 물리치료가 진행된다.

밀알복지재단의 박충관과장은 "장애아동을 방문물리치료의 취지와도 잘 맞아 앞으로 지속적으로 키즈폰과 후원 이벤트를 진행할 것이며 많은 꿈을 품은 아이들이 방문물리치료를 통해 재활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덧붙였다.

☞ 후원 계좌 : 754-01-0001-141(국민은행, 밀알복지재단)

☞ 후원 문의전화 : ☎ 02-3411-4665

이 대통령 전용열차, 일반인 첫 탑승

12일 아침 9시 40분 서울역에서는 '아주 특별한 열차'가 경주를 향해 출발했다.

몸이 불편해서 또는 외모가 달라서 마음껏 여행한번 해보지 못했던 어린이 81명(장애47명, 다문화34명)과 부모들 등 170여명은 대통령 이용 열차를 타고 1박2일의 여행을 떠났다. 대통령 이용 열차에 일반인이 탑승한 것도, 대통령 이용 열차가 일반인에게 공개된 것도 모두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다.

이번 행사에는 서울·경기 지역의 장애인 학교인 서울맹학교, 서울농학교, 서울인강학교와 삼육재활학교에 다니는 어린이들과, 서울 마포구와 성남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어린이들이 초청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1박2일 동안의 열차여행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경험이 되기 바란다고 했다. 건강하고 훌륭하게 자라서 대한민국의 훌륭한 일꾼으로 자라기를 바란다" 는 인사에 행사에 참가한 하빈신이 불편한 현빈(11)이는 "나도 열심히 노력해서 대통령처럼 나라를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답했다.

소진우 목사 2010년, 2011년 성회일정



강사 소진우 목사
H·P : 010-5267-1434
교회 : 02)3391-9676(대)

- 로고스세계선교협의회 부총재
- 라이즈월드신교협의회 대표회장
- 극동방송칼럼리스트
- 백석TV칼럼리스트
- 지저스타임즈 사장
- 예복교회 담임

한 해 동안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교회와 동역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0년 1월
4~7 도곡신기도원(양혜자 원장)
10 대광교회(오용석 목사)
천보신기도원(유택진 원장)
11~13 마가의다락방(박보영 원장)
17 경향교회(한진희 목사)
천보신기도원(유택진 원장)
16~20 신광교회(조호원 목사)
24 천보신기도원(유택진 원장)
25~27 신일교회(최세걸 목사)
28 갈렐신기도원(임예제 원장)

2010년 2월
1~3 한샘교회(천복수 목사)
7 천보신기도원(유택진 원장)
9~10 독산교회(김의태 목사)
10 성미을교회(권동희 목사)
15~19 선교지방문
21 천보신기도원(유택진 원장)
22~24 평택중앙교회(김옥복 목사)

2010년 3월
봄철축복대심방
7 천보신기도원(유택진 원장)
21 천보신기도원(유택진 원장)
20 화광교회(윤호균 목사)
20 동서울성현교회(라계동 목사)
20-1 갈렐신기도원(강화)(임예제 원장)

2010년 4월
5~7 도원교회(유순기 목사)
12~13 정기노회
13~15 호진교회(이영주 목사)
18 천보신기도원(유택진 원장)
19~21 이례교회(황승주 목사)
21 통영기독교연합회(미수교회)
26~30 선교지방문

2010년 5월
3 원당소망교회(김영호 목사)
9 성문교회(이종래 목사)
10~12 새임교회(김명식 목사)
16 천보신기도원(유택진 원장)
17~20 광은기도원(김한빼 원장)
20 갈렐신기도원(임예제 원장)
23~26 미쁜교회(이병현 목사)

2010년 6월
31~3 진주기도원(김진홍 원장)
6~10 심령부흥성회(예복교회)
8 성소기도원(박정연 원장)
13 천보신기도원(유택진 원장)
14~16 열방교회(신보현 목사)
18 일산금란교회(주성민 목사)
21~24 김림신기도원(이옥란 원장)
25 한갈신기도원(이영금 원장)
28~30 풍성한일곡교회(이수권 목사)

2010년 7월
5~7 성신교회(이명배목사)
11 천보신기도원(유택진 원장)
12~16 신학생여름특별세미나
19~22 에바다응답기도원(최민숙 원장)
23 21세기성령회 운동본부연합집회 (노베드로 목사)
26~29 임마누엘기도원(김순숙 원장)

2010년 8월
2~5 수도산기도원(이영이 원장)
8 천보신기도원(유택진 원장)
9~12 성산수양관(윤호균 원장)
16~18 경성교회(이정근 목사)
23~25 진접오남지역 연합성회(이원경 회장)
26 양평금식기도원(엄기호 원장)
26~27 갈렐신기도원(임예제 원장)
30~9.1 푸른초장교회(김홍렬 목사)

2010년 9월
5 천보신기도원(유택진 원장)
6~8 퇴계원장로교회(김동권)
13~16 교단총회
15 정동교회(백현기 목사)
20~24 인도선교집회(뱅갈로)
26~28 성산성결교회(인성기 목사)

2010년 10월
3 천보신기도원 (유택진 원장)
4~6 서북교회(배경락 목사)
8일 한얼신 기도원(이영금원장
11~12 장기노회
12~14 주영광교회(김상옥 목사)
16 갈렐신기도원 (임예제 원장)
17~20 동서울 성현교회(라계동 목사)
22 소망기도원(연인애 원장)
24 주님의 교회(양한기목사님)
24 천보신기도원(유덕진 원장)
25~27 초대교회(이종화 목사)
28일 천양이넘치는 교회(김향주 목사님)

2010년 11월
1~3 신천장로교회(강형규 목사)
8~10 경천교회(이원경 목사)
15~17 수원평인교회(김완구 목사)
22~24 평강교회(김기정 목사)
26 소망기도원 (연인애)
임마누엘수원권 (이수영원장)
28 천보신기도원(유택진 원장)
29~2 00선교지방문

2010년 12월
3 갈렐신기도원 (임예제 원장)
6~8 예수비전교회(김승엽 목사)
13~15 청남교회(조성민 목사)
20~24 00선교지방문
26 천보신기도원(유택진 원장)
27~29 논곡제일교회(소돈영 목사)

2011년 1월
1/1 갈렐신기도원(임예제원장)
3~5 동탄사랑의교회(이주훈목사)
7 한얼신기도원(이영금원장)
9~15 신년특별축복성회(예복교회)
13 김리교단 제직세미나
16~19 성마을교회(권동희목사)
24 천보신기도원(유택진원장)
24~7 김림신기도원(이옥란원장)

2011년 2월
31~4 킬보디아 선교대성회
6 호청중앙교회(최복태목사)
7~9 술산반석교회(김형진목사)
14~17 성산수양관(윤호균원장)
20 천보신기도원(유택진원장)
21~23 미수교회(전용구목사)
27~3/2 원당소망교회(김영호목사)

2011년 3월
봄철축복대심방
7~10 성석교회(편재영목사)
20 천보신기도원(유택진목사)

2011년 4월
4~7 천보신기도원(유택진목사)
10~12 정기노회
12~14 정선교회(이광규목사)
17 천보신기도원(유택진목사)
18~20 내곡교회(함형민목사)
25~27 신갈장로교회(이광수목사)

2011년 5월
2~4 서울서지방여전도연합성회
9~12 갈렐신기도원(임예제원장)
15 천보신기도원(유택진목사)
16~18 동대천교회(홍무열목사)
23~25 길갈교회(정명호목사)
29~6/4 심아특별기도대성회

2011년 6월
6~8 주우리교회(이황구목사)
12 천보신기도원(유택진원장)
13~17 선교지방문(노회선교위원회)
20~22 원도순복음중앙교회(정정환목사)
27~29 선한이웃교회(장순복목사)

2011년 7월
4~6 새영교회(이영근목사)
10 천보신기도원(유택진원장)
11~15 신학생여름특별세미나
18~21 소망기도원(연인애원장)

2011년 8월
1~4 금산임마누엘수양관(이수영원장)
7 천보신기도원(유택진원장)
8~11 광은기도원(김한빼원장)
15~18 김림신기도원(이옥란원장)
22~25 천문기도원(최정숙원장)
29~9/1 도곡신기도원(양혜자원장)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복교회